Entertainment p/20

헬멧 대신 경광등 '깜빡깜빡'

metro

메트로 2014년 2월 6일 목요일 www.metroseoul.co.kr

Sports p/23

"아사다가 금메달 딸 자격"

'겨울 왕국' 스포츠 대제전 하루 앞으로 제22회 러시아 소치 동계올림픽을 이틀 앞둔 5일(한국시간) 소치 해안 클러스터 올림픽파크 내 피시트 올림픽 스타디움(왼쪽)에서 열린 개막식 리허설에서 화려한 불꽃이 소치 밤하늘을 수놓고 있다. 2014 소치동계올림픽은 7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23일 폐막식까지 대장정에 돌입한다. <관련기사 23면> /연합뉴스

머니+카피 '차이나 IT'의 역습

모토로라 인수한 레노버 '스마트폰 3위' 점프 - 화웨이·텐센트 등도 글로벌 석권 앞둬

"1년 뒤 스마트폰 판매량을 1억대로 늘려 삼성과 애플을 압도하겠다."

양위안칭 레노버 최고경영자(CEO)가 지난해 1월 국외 가전쇼 행사장에서 세계 언론을 상대로 이처럼 선언했을 때만 해도 중국인 특유의 과장과 허풍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정확히 1년 뒤인 지난달 말 레노버가 모토로라를 인수하기로 확정되면서 양위안칭의 발언은 적어도 '허언'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미국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SA)에 따르면 세계 스마트폰 시장 4.5%를 차지하던 레노버는 모토로라 인수로 점유율을 6%까지 끌어올렸다. 이에 따라 화웨이(5.1%)와 LG전자(4.8%)를 제치고 단숨에 3위로 점프했다.

삼성전자(32.3%)와 애플(15.5%)이 군림했던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이 레노버의 가세로 삼파전 양상을 예고하는 순간이다.

레노버를 필두로 화웨이, ZTE, 텐센트와 같은 중국 IT기업이 글로벌 플레이어로 급부상하고 있다.

지난해 3분기부터 HP를 제치고 세계 1위 PC 메이커로 부상한 레노버가 스마트폰 시장마저 접수하면서 미국과 함께 G2로 분류되는 중국 기업의 진면목이 세상 빛을 본다.

여기 화웨이는 글로벌 통신장비 시장에서 부동의 1위였던 에릭슨과 자리 싸움을 하는 존재로 떠올랐다.

모바일 메신저 '위챗'과 온라인 게임을 유통하는 텐센트는 중국을 대표하는 두 기업인 페트로차이나, 차이나모바일과 동급으로 대우받는다. 이 회사의 시가총액은 페이스북과 비슷한 1000억 달러 수준이며 이미 시스코, HP와 같은 글로벌 기업의 시총을 추월했다.

이에 따라 이들 중국 기업과 경쟁해야 하는 국내 기업의 현주소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삼성, LG, 네이버, 카카오 등이 지난 '역대 우위'를 앞으로도 이어갈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최근 LG전자 주가 추이를 보면 다소 비관적인 전망이 나온다. 레노버의 모토로라 인수 보도가 나온 직후인 지난 3일 LG전자 주가는 신저가를 찍었고 4일에도 장중 6만1700원(-3.48%)까지 떨어지면서 이틀 연속 신저가를 새로 썼다.

이는 13억 명의 거대 내수시장을 발판으로 한 막대한 자금력과 원조 제품에 버금가는 모방력을 자랑하는 중국 기업의 잠재력이 반영된 것이다. 레노버가 IBM의 PC 브랜드 '싱크패드'로 시장을 평정하리라고는 누구도 예상치 못했다.

◆'12억 내수시장 덕' 거품론도

반면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현재의 성장을 이어가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즉 우물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크지만 '우물 안 개구리' 신세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레노버만 해도 지난 3분기 스마트폰 점유율을 보면 중국을 제외하고는 0.6%에 지나지 않는다.

아이폰과 흡사한 디자인의 스마트폰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중국의 애플 '샤오미' 등이 고만고만한 성능을 갖추고 디자인을 예쁘게 모방할 수 있지만 중국 밖으로 나오면 통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삼성 관계자는 "중국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는 삼성이다. 2위 레노버가 추격하고 있지만 현지인들도 이젠 잘 베낀 상품보다는 브랜드 등 상품성을 따진다"며 "저가 시장을 제외하면 중국 기업이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훈기자 zen@metroseoul.co.kr

지난 2010년 11월 열린 이산가족 상봉행사 마지막날 북측 윤태영(오른쪽)씨가 남측 동생 윤태현씨와 작별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3년 4개월 만에 만나요"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 20~25일 금강산서 개최

남북은 20~25일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개최하기로 5일 합의했다.

통일부는 남북이 이날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 준비를 위한 적십자 실무 접촉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로써 2010년 10월을 마지막으로 중단된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3년 4개월 만에 다시 열리게 됐다.

이번 합의 날짜는 우리 정부가 애초 제의한 이달 17~22일보다는 3일 늦어진 것이다. 그러나 이달 말 키리졸브 연습이 시작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북한이 훈련 전에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시작하자는 우리 제안을 기본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남북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회의를 열어 4시간여 만에 상봉 합의를 이끌어냈다. 우리 측 상봉단의 숙소는 우리 정부가 요구한 대로 금강산호텔과 외금강호텔로 정해졌다. 이번 상봉 행사를 준비하는 우리측 실무단은 7일 방북한다. /조현정기자

몹쓸 이웃의 '망언 경쟁'

기자 수첩

조선미
<글로벌부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필두로 일본 정재계 유력 인사들의 과거사 관련 망언이 점입가경이다.

4일 아베 총리는 내각 회의에서 안중근 의사에 대해 "한국 통감을 지낸 이토 히로부미를 살해해 사형 판결을 받은 인물"이라고 공식 답변을 내놨다. 안 의사를 '테러리스트'로 지칭하진 않았지만 아베 내각의 일방적인 역사 인식이 묻어나는 발언이다.

이에 앞서 일본 공영방송 NHK의 신임 회장은 "한국은 물론 전쟁국에는 모두 위안부가 있었다"고 주장해 논란을 빚더니 NHK 경영위원인 작가 햐쿠타 나오키는 "난징대학살은 없었던 일"이라고 공개 석상에서 목소리를 높여 파문을 일으켰다.

극우 본색' 아베 총리가 정권을 잡은 뒤로 한국을 비롯한 '과거사 피해국'은 우익 인사들의 망언 퍼레이드로 골치가 아프다. 엄연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있던 일로 우기면 과거사가 깨끗하게 청산되기라도 하는 걸까. 감옷은 예담도 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라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

독일 정부는 올해도 어김없이 국제 홀로코스트(유대인 대학살) 기념일(1월 27일) 행사를 열었다. 나치 정권의 과오를 잊지 않고 반성하며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서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다리를 다쳐 몸이 불편했지만 목발을 짚고 기념식에 참석했다. 일본 정부가 이 같은 기념식을 여는 것은 바라지도 않는다. 과거사 희생자들을 두 번 죽이는 망언만이라도 제발 자제해주길 바란다.

미세먼지 예보 오늘부터 전국 확대

초미세먼지(PM 2.5) 농도가 10㎍/㎥ 증가할 때 65세 이상 호흡기 질환 입원 환자 수는 8.84%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2006~2010년 서울시의 초미세먼지(PM 2.5) 농도와 국립환경과학원의 미세먼지(PM 10) 농도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청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정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호흡기질환 입원 환자 수는 미세먼지 농도가 10㎍/㎥ 증가할 때 전체 연령에서 0.66% 늘었고, 65세 이상 연령에서는 1.45% 늘었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10㎍/㎥ 증가할 때 호흡기질환 입원 환자 수는 전체 연령에서 1.06% 늘었다. 65세 이상은 무려 8.84% 증가했다.

한편 환경부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5단계 예보 등급을 적용한 미세먼지(PM 10) 예보제를 6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예보는 기상 통보문, 에어코리아 홈페이지, 일기예보 등을 통해 제공된다. /윤기림기자 rnkim@

새누리 서울시장 후보 거론 정몽준·김황식 경선 출마 사실상 뜻 굳혀

7선의원·전총리 '빅매치'

서울시장 후보 자리를 놓고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과 김황식 전 국무총리,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맞붙는 경선 '빅매치'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현재 여권 서울시장 유력 후보로는 김 전 총리와 함께 7선으로 당 대표를 지낸 정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또 이 최고위원은 이미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다.

정 의원은 5일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 직후 서울시장 출마와 관련 "제가 서울시장 출마를 하는데 무슨 제도적 어려움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황우여 대표와 별도로 만나 서울시장 선거를 비롯한 지방선거 전략에 대해 논의를 했던 것으로 알

정몽준 의원 김황식 전 총리

려졌다. 현대중공업 대주주인 정 의원은 서울시장에 출마할 경우 법 절차에 따라 주식 백지신탁 이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그는 "서울 시민을 위해서 할 일이 있고, 우리 당을 위해 할 일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하겠다"며 "박원순 시장보다 새로운 관점에서 서울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할 일이 있으면 제가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김황식 전 국무총리는 6·4 지방선거 서울시장 출마와 관련해 "새누리당 지도부를 조만간 만나서 이야기할 것"이라며 "필요에 따라서는 회동 결과도 밖으로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지인들과 만나 정 의원이 예비후보로 등록하더라도 경선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새누리당 핵심 인사들도 김 전 총리의 출마를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최고위원은 지난달 20일 열린 출판기념회에서 일찌감치 서울시장 후보 출마 의사를 밝혔다.

/조현정기자 jh@metroseoul.co.kr

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한 정홍원(오른쪽) 국무총리가 최근 '태도 논란'에 휩싸인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당' 윤진숙 "1차 피해자는 어민 아닌 GS칼텍스"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의 연이은 망언과 태도 논란이 물의를 빚고 있다.

윤 장관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여수 앞바다 기름 유출 사고에 대한 당정협의회에서 "1차 피해는 GS칼텍스, 2차 피해는 어민"이라고 말해 의원들의 거센 비난을 받았다.

이 답변에 대해 새누리당 제4정조위 간사인 이현재 의원이 "GS칼텍스가 가해자지 왜 1차 피해자냐"면서 "도선사 관리 등 기강이 제대로 안 돼 있으니 인재고, 그럼 GS칼텍스가 가해자 아니냐. 장관의 문제 인식이 잘못됐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윤 장관은 의원들이 어민들의 피해 실태 파악과 선보상 촉구를 하자 "우리가 하고 있다"면서 짜증 섞인 반응을 해 김석호 제4정조위원장으로부터 "우리는 하고 있는데 자꾸 이런 식의 답변은 장관으로서 자질을 의심케 한다"는 지적을 들었다.

그러자 윤 장관은 답변하면서 억울하다는 듯 웃음을 보였고 그런 윤 장관의 모습에 의원들은 "지금 웃음이 나오느냐" "자꾸 웃지 말고 이야기하라"는 경고를 받기도 했다.

앞서 윤 장관은 여수 기름 유출 사고 현장에서 코를 막는 등 진중하지 못한 태도로 비판을 받아왔다. /조현정기자

손학규 "재보선 출마 관심없다" 5일 동아시아재단 이사장 손학규 상임고문과 부인 이윤영 여사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이날 손 고문은 "재보궐선거는 지금 내 관심 밖에 있다"며 불출마를 시사했다. /연합뉴스

김한길 "범국가 통일준비위 만들자"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5일 여·야 정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범국가적 통일시대준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독일 통일의 사례를 예로 들며 "통일시대준비위원회에서는 국민적 합의에 기반을 두고 국민과 소통하는 국민 통합적 통일 정책을 준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야당 대표로서 평화적인 남북 관계를 재가동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 어떤 역할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대박론'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담장이라도 통일이 이루어질 것처럼 장밋빛 환상만 넘치니게 하는 상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흡수통일에 반대한다. 우리 사회가 감당하기 어려운 엄청난 혼란과 비용을 불러올 것이기 때문"이라며 "민주당은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대북 포용정책을 통한 평화적이고 점진적인 통일을 추구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 면책 특권 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개헌 사안인 만큼 개헌 논의가 있을 때 함께 논의하겠다"며 "당장은 그 권한이 남용될 수 없도록 하는 구체적 내용을 이야기 합의하자"고 새누리당에 제안했다. /조현정기자

청와대 대변인에 민경욱

민경욱(사진) 전 KBS 앵커가 5일 김행 전 대변인의 사퇴로 한 달여간 공석 중이던 청와대 새 대변인으로 발탁됐다.

KBS 문화부장을 맡고 있던 민 대변인은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제안을 받았다"며 "국가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수락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과의 소통은 바로 (기자) 여러분과의 소통이라고 생각하며 제가 기자 생활을 오래했으니 기자들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국민과 소통을 증진하는 데 일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꽃다운 소녀들의 외침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중학동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제1112차 정기수요시위'에 참석한 군산여고생들이 한복을 입고 구호가 적힌 팻말을 들고 서 있다. 이들은 일본 정부의 엇나간 발언이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는 행동이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연합뉴스

다산콜 전화해 "속옷 뭐 입나"

상담원들 성희롱·욕설에 우울증 자살충동까지

서울 시민의 민원 창구인 '120 다산콜센터' 상담원들이 극심한 감정노동으로 우울증과 자살 충동을 겪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인권위원회는 5일 120 다산콜센터 상담사들을 부당한 노동 인권침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서울시에 권고했다. 이는 인권위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정책 권고다.

인권위 조사 결과 월평균 상담사들은 무리한 요구(8.8회), 인격 무시(8.8회), 폭언·욕설(6.5회), 신체 위협(5.9회), 성희롱(4.1회) 등을 경험했다.

야간 상담의 절반은 취객으로 이들은 상담사에게 "너랑 사귀고 싶다" "여자친구 선물을 골라달라" "속옷 뭐 입느냐" 등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켜 상담사의 존엄성과 인격권을 침해했다.

전자 감시를 통한 스트레스도 심했다. 출근 체크부터 통화 대기·휴식, 여부 등 상담사들의 일거수일투족이 컴퓨터에 상세히 기록되고 모니터링됐다. 감청은 물론 화장실 가는 시간까지 통제받았다. /김민준기자

지방대 정원 2만명 감축

경쟁력 있는 대학 특성화 사업에 1조 지원 - 부실·비리 대학은 퇴출

지방대 육성을 위해 올해부터 2018년까지 5년간 1조원 이상이 투입된다.

교육부는 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연간 사업 예산은 1910억원의 특성화 사업비에다 지역선도대학 육성 사업비 100억원, 사업관리비 21억원이 더해져 총 2031억원에 달한다.

지원 대상은 비수도권 소재 4년제 국·공·사립대학으로 4개 과학기술원, 원격대학, 대학원대학은 제외된다.

특성화 사업 유형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특성화 사업을 집중 육성하는 '대학 자율' ▲인문·사회·자연·예체능 계열 및 국제화 분야를 별도로 지원하는 '국가지원' ▲지역 연고 산업과 연계한 '지역전략' 등 3가지다.

지역별로는 학생 수(90%)와 학교수(10%)를 기준으로 배분됐는데 충청권(재학생 수 25만6397명, 40개교)에 567억원, 대구·경북·강원권(25만144명, 32개교)에는 492억원이 지원된다.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은 본질적으로 지방대 구조개혁 작업의 일환이다. 비교 우위를 가진 경쟁력 있는 지방대와 학과는 육성하고 그렇지 못한 대학과 분야는 도태시켜 전체적으로 슬림하고 경쟁력 있는 대학을 만드는 게 목적이다.

교육부는 대학 사업에 대한 심사 의에 입학 정원 감축, 학과 통폐합 계획도 포함시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대학의 자발적인 구조개혁을 유도키로 했다. 이를 통해 최대 2만 명, 최소 7000~8000명의 입학 정원이 감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다비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사랑의 온도탑 136도 감사합니다" 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희망2014 나눔캠페인, 사랑의 온도탑 폐막식'에서 참석자들이 카드섹션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 이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해 겨울 이웃돕기 성금이 전년보다 38.3% 늘어난 5617억원으로 사상 최고액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개인정보 12만건 빼내 58억 챙긴 공무원

딸까지 동원해 정보 조회
국가지원금 등 신청 대행

정부에서 관리하는 개인이나 기업 정보를 이용해 국가지원금을 빼돌린 고용노동부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5일 고용부에서 관리하는 개인·기업 정보 800만 건을 임의로 조회, 개인정보 12만 건을 불법 유출하고 자격이 없는데도 국가지원금 신청 업무를 대행하여 수수료를 챙긴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공인노무사법 위반)로 고용부 5급 공무원 최모(53)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최씨의 딸(2X) 등 15명을 같은 혐의로, 최씨를 통해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업체 대표 3명을 사기 등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2008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빼돌린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영업사원들을 동원해 해당 기업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뒤 가족 명의로 설립한 5개의 사단법인을 이용해 지원금을 신청, 지원금 수령액 가운데 30%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부가 지급한 총 지원금 190억원 가운데 최씨 등이 챙긴 금액은 5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가 무려 6년간 범죄 행각을 벌이는 동안 해당 부처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도 못했다. /[illegible]기자 [illegible]

AI 의심신고 사흘째 '0'

2일 충북 음성 씨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감염의심 신고가 들어온 이후 사흘째 추가 의심 신고가 들어오지 않아 AI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드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전날 전남 무안의 토종닭 농장주가 AI 발병이 의심된다며 신고했으나 가축방역관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AI 감염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보이지 않아 단순 병성감정 의뢰로 처리했다"고 말했다. 해당 농장에서는 토종닭 80여 마리가 폐사했으며 간이 진단키트 조사에서는 AI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 /김한준기자

오늘의 역사 Today in History 그림 박상철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즉위
1952년 2월 6일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가 25세의 나이로 왕위에 올랐다. 그녀는 권국왕이던 아버지 조지 6세의 건강 악화로 이미 다양한 국가 행사에 아버지 대역으로 참석해왔는데 그분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왕위를 계승한 것이다. 여왕의 대관식은 이듬해인 53년 6월에 웨스트민스터 대수도원에서 거행됐는데 사상 최초로 TV를 통해 전 세계에 중계됐다. 지난 1999년 한국을 방문한 여왕은 자신의 73번째 생일을 안동 하회마을에서 맞았다.

부모와 떠나는 미래여행 개최

서울시 중구는 오는 8일 구청 대강당에서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중학생·학부모 등 200명을 대상으로 '부모와 함께 떠나는 미래여행'을 개최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우리 아이 공부키우기'와 '빛나는 명매를 위한 성공적인 입시 전략'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강서구 찾아가는 취업박람회

서울시 강서구가 관내 중소기업의 인력 채용을 지원하고 구직자에게 일자리를 찾아 주기 위해 6일 '찾아가는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취업박람회는 최근 준공한 서서울 모터리움(가양동 소재)에서 개최된다. 참여 희망자는 이날 오후 2시까지 이력서와 신분증을 지참, 서서울 모터리움을 방문하면 된다.

부부 출산준비 토요강좌 운영

서울시 금천구는 8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여성의 건강한 출산과 양육을 위해 '부부가 함께하는 출산준비 토요강좌'를 운영한다.

모유 수유의 일반적인 내용, 수유 자세 및 유방 통증 울혈 관리 등을 주제로 진행하는 이번 강좌는 산모들에게 올바른 수유 자세와 유방 통증 관리 등을 알리고자 마련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5일 오후 청와대 열린 국민조정실·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에 대한 2014년도 국정업가 종합분야 업무보고에서 규제개혁 발언 도중 '불도그과 진돗개'를 비유하며 말하게 토로 있다 /연합뉴스

복지예산 부정청구 5배 환수

권익위 청와대 업무보고

복지 예산의 허위 부정 청구를 막기 위해 공공기관에 발생한 직접 손해 전액 환수 및 손해액의 최고 5배를 물리는 징벌적 수제 도입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업무보고에서 '2014년 국민권익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가장 눈길을 끄는 내용은 국가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공공기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손해가 발생할 시 전액 환수하거나 손해액의 2~5배를 물리는 징벌적 수제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다.

또 권익위에서 설치 운영 중인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 예산낭비 신고센터 등 통해 부정 사례 신고를 활성화하고, 개별 관리되던 예산 낭비 신고정보를 기획재정부 및 안전행정부와 협업을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신고자의 신분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신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아울러 위반자 명단을 공표하고 일정액 이상 부당청구시 고발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집단 갈등을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집단 갈등이 예상되는 민원사안에 대해 '특별조사팀'을 운영하고, 민원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관심·유의·경보 3단계로 알려주는 민원확산 조기경보제를 5월 도입할 계획이다. /장윤희기자

'담배소송' 시민단체 간담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는 4일 한국소비자연맹 황명자 부회장을 비롯한 소비자·시민단체(7개 단체) 임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소비자·시민단체들은 공단이 추진하는 담배 소송에 대한 지지와 동참을 약속하고 승소할 경우 그 혜택이 모두 국민에게 고르게 돌아가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태혁 본부장은 "담배 피해 소송 추진 시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공단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검토를 충분히 하겠다"고 말했다.

'초계기' 중개 수십억 뒷돈

53억 리베이트 받아 해외 조세회피처 페이퍼컴퍼니로 '돈세탁'

해양경찰청의 해상초계기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리베이트를 챙겨 조세회피처로 빼돌린 업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로 방위산업 물자 중개업체 I사 대표 이모(63)씨와 이사 강모(44)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세포탈 혐의로 I사 법인도 불구속 기소됐다.

이씨 등은 해경이 수입하기로 한 해상초계기 CN235-110의 거래를 중개하면서 2009~2012년 항공기 제조사인 인도네시아 국영 PT DI사로부터 6차례에 걸쳐 리베이트 423만여 달러(약 53억여 원)를 받아 해외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세무 당국에 76억원 상당의 사업소득 신고를 누락하고 4년간의 법인세 약 14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해외 조세회피처인 마샬군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 등지에 세운 페이퍼컴퍼니 명의의 스위스 은행 계좌로 입금받는 수법으로 리베이트 수수 사실을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이번 중개 거래로 챙긴 거액의 리베이트 중 약 5억3000만원을 국내로 몰래 들여와 개인 주택 자금으로 쓰는 등 회삿돈을 횡령한 범죄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다혜기자 yth@metroseoul.co.kr

프리지어의 유혹… 이젠 진짜 봄인가 5일 오후 경기 수원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열린 국내 육성 프리지어 품평회에서 관람객들이 다양한 색을 가진 신품종 프리지어를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시급 최고·채용 최다… 강남구는 '알바천국'

서울 평균시급 110원 올라

서울의 아르바이트 평균 시급이 지난해 하반기 110원 상승해 평균 5653원으로 조사됐다. 서울시와 알바천국은 지난해 7~12월에 등록된 97개 업종의 채용공고 43만6151건을 분석한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지역별로 강남구(5997원), 동대문구(5910원), 종로구(5830원) 등은 평균보다 높은 반면 도봉구(5316원), 중랑구(5513원), 노원구(5515원) 등은 평균을 밑돌았다.

업종별로는 영업·마케팅(7792원)과 고객 상담(7076원) 분야가 높은 편이었고, 편의점(5215원), 베이커리(5162원), 커피전문점(5217원), 피시방(5243원) 등은 올해 최저임금(5210원)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다.

업종별 채용 공고 수는 음식점(8만6476건), 편의점(8만3483건), 패스트푸드(6만2832건) 순이었다. 강남구가 가장 많은 5만8714건(13.5%)의 채용 공고를 냈고, 서초구(6.5%)와 송파구(6.3%)가 뒤를 이었다.

엄연숙 서울시 일자리정책과장은 "6개월 만에 시급이 110원이나 오른 것은 고용노동부의 업무 권고에 따라 업주가 아르바이트 채용 정보 사이트에 공고를 낼 때 금여 항목에 '협의 후 시급 결정'을 삭제한 결과"라며 "올해 아르바이트 청년들이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김성준기자 m3um@

라이나생명

나이 들수록 가장 걱정되는
암·치매·사망

지금, 라이나에서 실버분을 위한 다양한 보험으로 대비하세요

61~80세라면 100세까지 길게 다양한 암 보장

라이나 무배당 **실버암보험**(갱신형)

- ☑ 61세에서 80세까지 가입 가능한 실버전용 암보험
- ☑ 사시는 내내 암치료비 걱정 더시라고 갱신을 통해 100세까지 보장
- ☑ 위암 · 폐암 · 대장암 같은 각종 일반암은 물론 백혈병 · 뇌암 · 골수암도 빠짐없이 보장, 요즘 빈발하는 전립선암 · 갑상선암 · 유방암 · 기타 피부암도 보장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갱신 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 및 보험료율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 될 수 있음 *1회한, 암 종류별 보장내용 및 보장개시일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 참조

50~81세라면 나이·건강 상관없이 무진단 무심사로 가입

라이나 무배당 **OK실버보험**(갱신형)

- ☑ 가입 2년 이후 사망 시 사망보험금 일시금 지급
- ☑ 질병, 재해, 사고 등 각종 사망에 대해 보장
  *계약일로부터 만 2년 이내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 시 이미 납입한 보험료만 지급
- ☑ 재해사망은 일반사망보험금의 2배를 가입 당일부터 보장

*최초 계약 7년 만기 후 5년마다 갱신되는 상품으로 갱신 시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나이와 보험료율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음
*고의적 사고 및 가입 2년 이내 자살은 보장하지 않음
*사망보험금 이외의 보험금은 없음

45~70세라면 경증치매로 한 번 중증치매로 한 번 두 번 보장

라이나 무배당 THE**큰보장**실버보험

- ☑ 치매 초기부터 관리할 수 있도록 경증치매부터 보장
- ☑ 재해로 인한 입원, 골절, 화상 수술 보장 (선택 특약)
- ☑ 노년에 흔히 하는 폐렴, 천식, 간질환, 신장질환으로 인한 수술비 보장 (선택 특약)
- ☑ 처음 보험료 그대로 갱신 없이 80세까지 보장

*가입 후 2년 후에 경증치매 또는 중증치매로 진단확정 시 치료보험금 지급

걱정만 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24시간 무료 상담문의

080-325-1100

전세계 오렌지값 폭등 우려

미 캘리포니아 한파·가뭄 생산량 줄어 한국도 영향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한파와 가뭄이 겹치면서 감귤류 생산이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오렌지를 수입하는 한국도 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4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감귤조합은 지난해 샌호아킨밸리 지역의 감귤류 생산 자질 규모가 4억4100만 달러(약 4751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껍질이 얇은 캘리포니아 감귤은 지난해 12월 한파로 냉해를 입었다. 약 20%는 냉해가 닥치기 전에 수확했지만 일주일간 계속된 추위로 나무에 달려있던 감귤 열매 40%는 상품가치가 없어졌다.

조합 측은 470만 개에 이르는 감귤을 판매할 수 없게 돼 1억5000만 달러의 매출 손실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오렌지 농가의 피해 상황은 더 심각하다. 오렌지 수확량의 30%에 해당하는 2억6000만 달러어치가 냉해를 입었다.

특히 7월까지 수확하던 캘리포니아 감귤과 오렌지는 5월 중순 이후 출하가 어려워 가격 급등이 예상된다. /조선미기자

오바마 "한국처럼 초고속 인터넷 보급" 4일(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애덜파이의 한 중학교를 찾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아이패드를 사용해보고 있다. 이날 오바마 대통령은 전국 2000만 명의 학생이 학교에서 고속·광역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도록 3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학교 내 고속 인터넷망 보급을 강조하면서 고속 인터넷이 100% 보급된 한국을 모범 사례로 꼽았다. /AP 연합뉴스

"무슨 생각할까" 5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아베 신조(왼쪽) 일본 총리가 손에 턱을 괸 채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이번엔 NHK 여성 경영위원 "신문사 난입 우익인사 자살을 '신께 목숨 바쳤다' 미화"

'아베 낙하산' 릴레이 망언

'문제 있는 사람들이 역시 문제 있는 짜장을 뽑은 것인가.' 일본 공영방송 NHK 신임 회장의 '위안부 망언'에 이어 그를 선출한 NHK 경영위원회 구성원들의 우익 예찬론, 여성 비하 발언 등이 최근 언론에 공개되면서 논란이다.

5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NHK 경영위원인 하세가와 미치코(사진) 사이타마대 명예교수는 자살한 우익단체 인사를 예찬하는 글을 썼다.

하세가와 교수는 지난해 10월 지인들에게 전한 서신에 우익정당 '바람회' 소속 노무라 슈스케(사망 당시 57세)의 자살과 관련, "인간이 (자신의) 죽음으로 신과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노무라는 신에게 목숨을 바쳤다"고 적었다.

노무라는 아사히 신문이 바람회를 조롱하는 삽화를 실은 데 항의하기 위해 신문사를 방문, 고위 인사들과 면담하던 도중 권총으로 자살했다.

또한 여성인 하세가와 교수는 지난달 6일 우익 성향의 산케이신문에 게재한 칼럼에서 "여자가 집에서 아이를 낳아 기르고 남자가 아내와 자식을 부양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여성의 사회 진출을 촉진하는 '남녀고용기회균등법'을 비판해 물의를 빚었다.

이와 함께 NHK 경영위원인 작가 햐쿠타 나오키는 지난 3일 도쿄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다모가미 도시오 전 항공막료장의 지원연설에서 "난징대학살은 없었다"고 주장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NHK 신임 회장과 그를 선출한 위원들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는 발언을 쏟아내는 문제 인식로 드러나면서 일본에서는 공영방송의 산 퇴도가 추락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NHK 측은 비상근직인 경영위원이 자신의 사상과 신조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막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극우 성향 인사인 하세가와와 햐쿠타는 지난해 NHK 경영위원으로 선임됐다. NHK 경영위는 NHK의 사업 계획, 회장의 임명 확인 등 권한을 가진 NHK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 중·참의원의 동의를 얻어 총리가 임명하는 위원 12명(임기 3년)으로 구성돼 있다. /조선미기자

"시간이 없다"…혼다 美의원, 군위안부법 즉각이행 촉구

지난달 '일본군 위안부 법안'을 통과시킨 마이크 혼다(민주·사진) 미국 하원의원이 존 케리 국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법안의 이행을 강력 촉구했다.

4일(현지시간) 혼다 의원은 공개 서한에서 "아직 살아남은 희생자들에게는 인내할 여유가 없다"며 "장관이 이번 사안에 대해 즉각 관심을 가져달라"고 밝혔다.

혼다 의원은 지난달 17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세출법안에 2007년 7월 30일 하원의 위안부 결의 통과를 주목하고, 국무장관이 결의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일본 정부를 독려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그는 위안부 피해자였던 황금자(91) 할머니가 최근 별세한 사실을 언급하며 "열여섯 살 때 일본군에 끌려가 성노예로 살아야 했던 할머니의 이야기는 남아있는 다른 생존자들에게 정의를 찾을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번 사안의 해결을 위해 미 국무부 내 민주·인권 노동국과 인신매매 감시 단속청의 당국자와의 면담을 주선해줄 것을 요청했다. /조선미기자

자신이 사는 아파트 단지 일부러 불지른 미 소방관

화재 진압 능력을 키우기 위해 일부러 불을 낸 미국 소방관에게 최근 중형이 선고됐다.

4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시간주 클린턴카운티 순회법원은 1급 방화 혐의로 기소된 전직 소방관인 매슈 렌드제어(36)에게 최소 5년에서 최장 3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한 소방관의 방화로 집을 잃은 피해자들에게 26만4500달러를 배상하도록 명령했다.

'소방관 방화' 사건은 2012년 12월 벌어졌다. 화재 현장 투입을 앞두고 기초훈련을 받던 렌드제어는 자신이 사는 아파트 단지의 가스관 주위에 불을 붙였다. 불이 가스관을 타고 번지면서 아파트 건물은 잿더미가 됐다. 방화로 숨진 사람은 없었지만 주민 20여 명은 보금자리를 잃었다. /조선미기자

칠성사이다·펩시콜라 10일부터 가격 인상

롯데칠성음료는 오는 10일부터 일부 음료 제품 가격을 평균 6.5% 인상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가격 인상은 지난 2012년 8월 이후 1년6개월 만으로, 가격 조정 대상 품목은 칠성사이다·펩시콜라·칸타타·게토레이 등 총 14개 제품이다.

제품별 평균 인상률은 칠성사이다가 8.3%, 펩시콜라 6.6%, 칸타나 5.3%, 게토레이 5.2% 등이다.

회사 측은 델몬트 트로피카나·레쓰비·아이시스 등은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가격은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가격 조정은 롯데칠성음료의 전체 매출 기준으로 1.9% 인상하는 것으로 최소화 수준으로 결정했다고 롯데칠성음료는 강조했다. /차현정기자

market index <5일>

코스피	코스닥	금리	환율
1891.32 (+4.47)	505.82 (-1.84)	2.86 (+0.01)	1076.00 (-3.50)

“공익 위해 ‘제4이통’ 5수 도전”

정부승인 본심사 앞둔 KMI 공종렬 대표 기자간담회
월 기본료 3만6000원에 음성·LTE 무제한 제공 약속

"우리는 통신 사업이 공익 서비스가 돼야 한다는 데서 시작했다. 새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 국민에게 저렴한 요금과 혜택을 돌려주겠다."

공종렬(사진) 한국모바일인터넷(KMI) 대표는 5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통신 사업의 공익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공 대표는 "KMI는 현재 제4이동통신 서비스를 위해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고 본 심사를 앞두고 있다"며 "정부의 승인 허가가 난다면 예정대로 2015년 4월 서비스를 개시하겠다"고 말했다.

2009년 결성 이후 와이브로 방식으로 제4이통에 네 차례 도전장을 낸 뒤 번번이 실패한 KMI는 이번엔 시분할 롱텀에볼루션(LTE TDD) 방식으로 도전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제4이통사에 LTE TDD도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서 KMI도 이번엔 성공할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재무적 평가로 연거푸 고배를 마신 KMI가 이번에도 비슷한 수순을 밟지 않겠느냐는 실패론과 박근혜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 기조 등 상황이 맞물려 제4이통 탄생이 가능할 것이라는 성공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KMI는 제4이통 승인 시 음성통화 없이 LTE 데이터만을 무제한 이용할 경우 월 기본료 3만원, 음성통화를 같이 이용하는 경우 월 기본료 3만6000원에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음성통화만을 이용할 경우에도 월 기본료 8000원으로 음성통화 1초당 1.4원이 과금된다.

아울러 한해 가계통신비의 35.7%가량을 차지하는 단말기로 인한 통신비를 줄이고자 단말기를 자체 개발해 2년 약정 기준 40만원 이하로 공급할 계획이다.

공 대표는 "장비 및 기술 관련 중소·중견기업과의 상생으로 건전한 LTE TDD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세계 정보통신기술 시장에서 G2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기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하나·권효선기자

lyo4838@metroseoul.co.kr

‘현금 품은’ 국민

한은, 지폐 환수율 급감

지난 1년 사이 지폐 환수율은 떨어지고, 개인 금고 매출액은 증가하는 등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오히려 지하경제 수요가 커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은행이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설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만원권 환수율은 48.6%였다. 1년 전보다 10%포인트 이상 감소한 수준이다. 1만원권 환수율(94.6%)도 전년보다 12.8%포인트 하락했고, 5000원권은 82.1%로 7.8%포인트 떨어졌다.

5만원권 환수율은 발행 첫해인 2009년 7.3%에 그쳤지만 2010년 41.4%, 2011년 59.7%, 2012년 61.7% 등으로 꾸준히 상승했다. 하락세로 돌아선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설훈 의원은 "관계 당국은 지하경제 양성화에 일정 부분 성과도 있지만 부작용 역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은지기자

부쩍 늘어난 '길거리 환전소' 5일 서울 중구 명동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환전소 앞을 지나고 있다. 이날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전국의 환전상 수는 1년 전보다 63개 늘어난 1275개로 집계됐다. 환전상 수는 외국인 관광객 증가세에 힘입어 4년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연합뉴스

4대 금융지주 ‘숨기고 싶은 성적표’

오늘 우리·하나금융부터 작년 연간 실적 발표

이번주부터 국내 금융지주사의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잇따라 발표된다. 증권가에서는 금융지주사의 4분기 실적이 부진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6일), KB금융지주(7일), 신한금융지주(11일) 등 4대 금융지주가 지난해 연간 성적을 발표한다. 11개 증권사가 예상한 이들 금융지주사의 지난해 순이익은 4조9800억원이다. 지난 2012년 순이익 7조2100억원과 비교하면 2조2300억원(31.0%) 줄어든 수준이다.

특히 지난해 4분기 실적은 바닥을 쳤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우선 KB금융과 하나금융은 지난해 4분기 순이익이 각각 3150억원과 2154억원으로, 전분기 4266억원과 3636억원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신한금융은 4분기에 3921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됐다. 분기마다 5000억원 이상의 이익을 내던 것에 비하면 크게 낮아진 규모다.

다만 우리금융의 경우 4분기에 1676억원의 이익을 내 전분기(306억원)보다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연간 순이익은 6432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돼 금융지주사 중 최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됐다.

이처럼 금융지주사들의 실적이 악화된 것은 대기업 부실에 따른 대규모 충당금과 저금리에서 비롯한 이자마진 감소 때문이다.

그럼에도 증권가에서는 올해 장밋빛 실적을 전망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고금리 은행채의 만기가 돌아오는 KB금융과 하나금융은 이자 수익이 많이 오를 수 있다"고 제시했다. /김민지기자 minji@

뉴스 & 뉴스

전통장 담그는 재료 다 있네 농협유통이 5일 서울 서초구 하나로클럽 양재점에서 '전통장 재료 모음전'을 열고 메주, 천일염, 메주가루, 참숯 등 전통장 재료들을 한자리에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외환보유액 사상 최고 행진

● 외환 보유액이 7개월째 사상 최고 행진을 이어갔다. 한국은행은 1월 말 외환 보유액이 3483억9000만 달러로 전월보다 19억3000만 달러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 외환 보유액은 지난해 4월 3288억 달러에서 6월 3264억4000만 달러까지 뒷걸음친 뒤 7월부터 불어나면서 사상 최고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유가증권 이자 수익 등 외화자산 운용 수익이 늘어난 점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김선지기자

다단계판매 112곳으로 증가

● 지난해 4분기 정식 등록한 다단계 판매업체가 112곳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분기보다 7곳 증가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년도 4분기 다단계 판매업 변경 현황을 조사한 결과 4개 사업자가 폐업하고 11개 사업자가 신규 등록해 총 112곳으로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 이는 2012년 1분기 71개사를 기록한 이후 7분기 연속 증가세다. 4분기 중 상호나 주소, 전화번호 등 주요 정보를 변경한 사업자는 13개사로 나타났다.

연금복권520 제136회

등위	당첨금	당첨번호	
1등	월 500만원 20년	1조	433874
		2조	772168
2등	1억원	1등의	전후 번호
3등	1000만원	각조	258648
4등	100만원	각조	58143
5등	2만원	각조	002
6등	2000원	각조	52 03
7등	1000원	각조	1 2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41 142
TEL 02)721-9800 FAX 02)730-1081

발행·편집인	남궁호
사장 겸 편집인	공종학
편 집 국 장	조인호
서울광고문의	02)721-9861 3
부산광고문의	051)959-2700
독 자 센 터	02)721-9861

2005년 6월 28일 정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006

은행·보험 '점차 맑음' 증권·카드 '먹구름'

금융권 업종별 올해 기상도··경기·개인정보 유출 영향 '희비'

개인정보 유출로 금융권이 홍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상반기 은행, 보험, 카드, 증권 등 국내 대표적인 금융업종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과 보험은 상반기를 지나면서 다소 연정세를 되찾을 것으로 보이지만 카드와 증권업계는 정보 유출로 인한 신뢰 하락과 영업환경 악화로 올 한해 고전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은행의 경우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로 인한 금리 문제가 변수로 작용하겠지만 그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향후 기준금리가 갑자기 변동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지속적인 인상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건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금융권 시각이다.

이에 따라 은행은 향후 금리 인상에 따른 반사 효과로 예대차 마진에서 이익이 개선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지속돼 구조조정의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보여 은행권의 기상도는 점차 맑음으로 변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보험권은 이번 정보 유출 사태에서 가장 피해를 덜 본 업종이다. 중간에 전화영업(TM) 금지라는 악재가 있었지만 단기간에 끝나 보험사 실적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주식시장 붕괴와 저금리 기조로 자산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은행과 마찬가지로 금리 인상이 되면 그나마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only 올 상반기에는 실손 의료보험을 중심으로 신상품 출시가 예정돼 있어 이 상품의 판매 정도에 따라 그동안의 부진에서 탈출, 반전의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업계는 기대 중이다.

반면 증권업계와 카드사들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 지난 회계년도 주요 증권사의 순이익은 87%나 감소할 전망이다.

업황 악화가 지속되고 낮아진 이익 체력과 증대된 자기자본을 감안하면 중개업무 중심의 현 수익 구조로는 부진 탈출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비용 절감도 한계 상황에 근접해 더 이상 수익을 개선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 그나마 자기자본 직접 투자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건설 경기나 대규모 프로젝트 시장이 죽은 현 시점에서 그 효용성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달릴 수밖에 없다.

카드 3사가 정보 유출로 3개월간 영업정지를 받은 카드업계도 사정은 마찬가지. 업계는 KB, 롯데, NH농협 3사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기본적인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져 다른 회사들도 영업이 쉽지 않다. 이미 카드사들은 지난해부터 실적 악화로 새로운 수익원 찾기에 부심해왔다.

현 상황에서는 신규 사업을 벌이는 것은 언감생심이며 기존 고객 이탈을 막는 것이 급선무일 정도다.

/박상환기자 sang@metroseoul.co.kr

빗나간 '그레이트 로테이션'

테이퍼링 단행시 예상 달리 올해 '주식→채권' 자금 이동

미국 돈줄 고삐를 당기자 채권 강세장이 지속되는 등 증시가 전망과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

테이퍼링이 단행되면 투자금이 채권시장에서 주식으로 옮겨가는 '그레이트 로테이션'이 나타날 것이란 예상이 많았으나 빗나갔다. 다만 시장에서는 일시적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 들어 국내시장에서 '리버스 로테이션'(주식에서 채권으로의 자금 이동)이 뚜렷했다.

양적완화 추가 축소를 결정한 1월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후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서 1조700억원어치를 팔아치웠다.

코스피지수는 전날 5개월 만에 1900선이 붕괴되고서 회복하지 못했다. 반면 국내 채권시장에서 외국인은 '사자' 행보를 보였다.

외국인은 전날 국채선물 시장에서 3년 만기 국채선물을 1만4470계약 순매수하며 4거래일째 매수 우위를 기록했다.

이에 힘입어 전날 국고채 금리는 3년물(연 2.850%), 5년물(연 3.173%), 10년물(연 3.542%) 모두 연중 최저점을 찍었다.

미국과 중국의 경기 회복세가 주춤하고 신흥국 금융 불안 여파가 번지면서 안전자산 선호도가 높아졌다. 다만 전문가들은 테이퍼링 추가 축소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주식시장으로 방점이 옮겨갈 것으로 내다봤다.

권규백 이트레이드증권 연구원은 "현재 위험자산 약세는 신흥국 위기 등에 따른 단기적인 현상이며 내년 등 앞으로 미 금리에 대한 연방준비제도의 시그널이 나오면 시장이 반응하면서 그레이트 로테이션을 향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통영 '굴' 넣은 건강죽 드세요 5일 서울 종로구 본죽 계동점에서 모델들이 통영 굴을 주제로 한 해바라기굴죽과 버섯굴죽을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골프공도 컬러 시대 5일 서울 중구 한강로동 이마트 용산점에서 도우미들이 볼빅 컬러볼을 소개하고 있다. 이 골프공은 눈밭은 물론 초록색 잔디에서도 눈에 잘 띄는 형광색, 주황색, 핑크색 등 다양한 컬러가 특징이다. /신세계 제공

영업정지 카드사 '공익카드 발급' 허용

금감원, 예외 두기로

오는 17일부터 3개월 영업정지에 들어가는 카드사들도 공익·복지,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카드의 경우 신규 및 재발급이 허용된다. 또 영업 인력이나 텔레마케터들에 대한 부담만 다소나마 덜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제재 조치를 받게 된 KB국민, 롯데, NH농협카드에 대해 이같이 지시하고 협조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업정지가 내려지면 신규 발급이 금지되는 것이 정상이지만 공익적인 목적의 비영리 부문에 대해서는 최대한 배려를 통해 혼선을 없애기 위해 예외로 두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학생증과 연계된 학생카드, 육아를 목적으로 하는 카드, 군인 및 공무원 카드는 기존처럼 신규 발급이 허용될 전망이다.

일반 카드의 경우 신규 발급은 금지되지만 기존 카드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재발급 및 부가서비스, 포인트 등에 대한 사항은 여전히 똑같이 유효하다. 현금서비스와 카드론도 기존에 받은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금융 당국은 또 카드사가 영업 인력이나 텔레마케터들에 대해 고용 인정과 최소한의 임금 보전을 해주도록 해 이들의 생활에 큰 문제가 없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카드업계에서도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영업 인력에 대한 불이익은 주지 않을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환기자

다음, 아이폰용 '마이원 모바일 월렛 앱' 출시

포털 다음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에 다양한 멤버십을 연결할 수 있는 아이폰용 '마이원 모바일 월렛' 앱을 5일 출시했다.

마이원 모바일 월렛은 사용중인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에 다양한 멤버십을 연결해 카드 한 장으로 결제와 포인트 적립을 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이다.

앱스토어에서 내려받은 앱에 신용카드를 연결한 후 원하는 제휴사 멤버십을 선택하면 바로 이용할 수 있으며 각 제휴사 멤버십의 혜택, 적립 내역, 포인트 사용, 쿠폰, 공지사항 등을 모바일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출시한 안드로이드용 앱과 같이 멤버십별로 국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5장까지 연결할 수 있다.

/이선용기자

WIZARD MUTTERL

머털 도사

2014. 01.17 OPEN 대학로 AN아트홀

롯데캐슬 골드파크 분양 재개

3.3㎡ 100만원 이상 낮춰 내일 모델하우스 재오픈

지난해 견본주택까지 개관했다가 분양을 연기한 '롯데캐슬 골드파크'가 공급 일정을 확정했다. 오는 7일 모델하우스 재오픈 후 12일 특별공급, 13일 1·2순위, 14일 3순위 청약이 진행된다.

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롯데건설이 서울 금천구 독산동 옛 육군도하부대 자리에 공급하는 '롯데캐슬 골드파크'가 무난한 성적을 거둘 것이라는 평가다. 애초 서남권 최초 복합단지로 크게 주목을 받았던 데다 분양가도 작년보다 100만원 이상 내린 덕분이다.

이에 따라 승인받을 당시 3.3㎡당 1488만원에 달했던 '롯데캐슬 골드파크'의 분양가는 1300만원대 중반까지 낮아지게 됐다. 전용면적 59㎡와 72㎡의 최고 분양가가 1400만원대로 알려지기는 했지만 소형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터라 문제될 게 없다는 분위기다.

성공적인 분양이 기대되는 만큼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작년에는 크게 문제되지 않았던 점도 소음이 부각되고 있어서다.

김근옥 부동산플래너 팀장은 "분양이 갑자기 중단되면서 롯데건설이 흐름을 놓친 게 사실이지만 일단 분양가를 100만원 이상 낮춘 이상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선옥기자 pso1@metroseoul.co.kr

광교신도시 전세 가격 수도권서 상승률 최고

광교신도시 전셋값이 지난 2년간 수도권에서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3.3㎡당 평균 무려 316만원이 뛰었다.

부동산 포털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5일 현재 수도권 아파트 3.3㎡당 평균 전셋값은 711만원으로 2년 전 591만원에 비해 20.3%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광교신도시가 59.5%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는 2년 전 입주 초기 물량이 몰리면서 전셋값이 낮게 형성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용면적 85㎡(33평형)에 살던 세입자가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평균 1억원가량 올려줘야 하는 셈이다.

/박선옥기자

스틱·핸디 둘 다 되는 무선청소기
가전그룹 일렉트로룩스 코리아는 5일 스틱청소기와 핸디청소기 두 가지 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 2014년형 무선청소기 '에르고라피도'를 출시했다. /연합뉴스

장거리 주행에 딱! 5일 서울 성동구 용답동 BMW 모토라드 전시장에서 모델들이 장거리 엔듀로 '뉴 R 1200 GS 어드벤처'와 럭셔리 투어러 모델인 '뉴 R 1200 RT'를 선보이고 있다. 가격은 BMW 뉴 R 1200 GS 어드벤처가 3100만원, 뉴 R 1200 RT는 2910만원이다. /연합뉴스

한-일 '하이브리드카 대결'

내수시장서 현대 그랜저·기아 K7 중심 판매 증가
토요타의 캠리·렉서스 ES300h 모델과 대결 기대

국내 하이브리드카 시장이 살아날 조짐을 보이면서 현대차와 토요타의 대결이 본격화되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 현대차의 하이브리드카 판매는 총 1642대로 전년 동월(1120대)보다 46.6%나 늘었다. 상승세는 그랜저 하이브리드가 주도했다. 이 차는 1156대가 판매돼 기존 그랜저 모델의 판매를 늘리는 데 큰 공헌을 했다. 반면에 쏘나타 하이브리드는 436대에 그치며 전년 동월 대비 절반 이하의 실적을 기록했다. 이는 쏘나타 하이브리드의 수요가 그랜저 하이브리드로 옮겨가면서 판매 증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같은 기간에 기아차는 K5 하이브리드가 447대, K7 하이브리드가 385대 팔렸다. K5 하이브리드만 판매되던 지난해 1월에 618대의 실적을 올린 것에 비하면 역시 판매 증가 효과를 봤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내수 시장에서의 승부가 더욱 흥미로운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기존에는 3000만원대 시장에서 쏘나타·K5 하이브리드가 있었고, 4000만원 이상의 시장에서는 렉서스의 하이브리드 모델이 있었기 때문에 수요층이 겹치는 일이 적었다. 토요타·렉서스에서 유일한 3000만원대 하이브리드 모델인 프리우스는 차종의 특성상 경쟁 모델이 딱히 없다. 그러나 그랜저와 K7 하이브리드의 등장으로 양사가 경쟁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토요타 캠리 하이브리드는 4230만원으로 그랜저 하이브리드(3460만원)와 770만원이 차이 난다. 그러나 그랜저 하이브리드에 풀옵션을 갖추면 3936만원으로 가격이 훌쩍 뛴다. 따라서 렉서스 ES 300h 프리미엄(4990만원)과도 가격차이가 대폭 줄어들어 서로 경쟁 관계가 형성된다.

렉서스는 지난해에 3365대의 하이브리드 모델을 판매했고 이는 렉서스 국내 판매량의 62%에 해당한다. 토요타는 전체 판매의 30.3%가 하이브리드 모델이다.

업계에서는 렉서스가 향후에도 하이브리드 라인업 확충에 전력을 쏟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에는 IS300h가 데뷔할 예정이며 유럽과 일본 등지에서 호평받고 있는 GS300h까지 가세할 경우 하이브리드의 풀 라인업이 완성된다.

/김성훈기자 ferrari@metroseoul.co.kr

10개의 '빈 의자' KT맨이냐 삼성맨이냐

Issue&View

황창규 회장 '대대적 인사'

/이재영기자 ljy0403@metroseoul.co.kr

'삼성 미래전략실' 본따 온 미래융합전략실 실장 자리 대표 해임한 계열사 10곳 누구 앉히나가 'KT의 색깔'

황창규 KT 회장이 KT에 새로운 색깔 입히기 작업에 들어갔다.

5일 업계에 따르면 KT는 이날 팀장급 인사, 6일 직원 인사를 단행한 뒤 이르면 다음주께 계열사 인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황 회장은 4일 10여 곳의 계열사 대표에게 해임 통보를 하는 등 대대적인 물갈이에 나서면서 이석채 전 회장의 색깔을 벗기고 새로운 색깔을 입히겠다는 방침이다.

◆첫 인사는 '삼성맨' 김인회

황 회장은 지난달 28일 취임 후 하루 만에 임원급 인사를 단행했다. 특히 이날 인사에서 주목받은 것은 김인회 전 삼성전자 상무의 영입이었다.

당초 KT는 김 전 상무를 외부에서 영입된 것이 아닌 전보 형태로 재무실장에 발령 냈다. 이에 일각에선 삼성 출신임을 알리지 않으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됐다.

김 신임 재무실장은 1989년 삼성전자에 입사해 1994~2005년 일본 삼성의 관리 담당 상무를 지냈다. 이후 2009년 삼성코닝, 삼성중공업을 거쳐 지난해까지 삼성전자에서 상무로 일하는 등 재무통으로 알려졌다.

삼성 출신인 김 실장 영입 소식에 업계에서는 황 회장이 삼성 출신 인사들을 추가 영입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황 회장이 취임 후 삼성의 미래전략실을 본따 만든 것으로 알려진 미래융합전략실 실장에 누가 올지도 주목하고 있다. 미래융합전략실은 KT의 각 부문 및 그룹사 별 핵심 역량을 진단하고 융합을 통한 시너지 창출로 미래 성장 엔진을 발굴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일각에서는 현재 공석인 미래융합전략실장에도 삼성 출신이 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핵심 계열사부터 물갈이

KT는 4일 이강태 BC카드 사장, 문재철 KT스카이라이프 사장, 이희수 KT렌탈 사장, 이상훈 KT파워텔 대표 등 10개 계열사에 대표 해임 통보를 했다.

이번에 해임 통보를 받은 곳 대부분이 KT의 핵심 계열사라는 점에서 황 회장의 본격적인 계열사 인사를 단행하기 위한 수순으로 전망된다.

황 회장은 공석이 된 이들 계열사의 후속 인사를 이르면 다음주 초 단행할 예정이다.

앞서 황 회장은 지난달 27일 취임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이 전 회장의 측근으로 꼽힌 김일영, 김홍진 사장 등을 내치고 이 전 회장 재직 이전 KT 사업을 주도한 임헌문·오성목 부사장 등을 중용했다. 이에 따라 이번 계열사 대표 인사 역시 누구를 앉힐지 귀추가 주목된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계열사 인사를 앞두고 황 회장도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KT 출신 임원들이 계열사 대표로 이동할지 삼성맨은 새롭게 영입할지 등 계열사 인사를 보면 황 회장의 향후 경영 계획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태극전사 점수·기록·메달수 맞히세요" 삼성전자가 '2014 소치 동계올림픽' 온라인 캠페인 '갤럭시 노트3 올림픽을 노트하다'를 시작한다. 김연아 선수의 점수, 이상화 선수의 기록, 쇼트트랙 선수들의 총 메달 수를 맞히는 등의 게임형 이벤트가 5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삼성전자 제공

2월 알바 "바쁘다, 바빠"

밸런타인데이·졸업 시즌 판촉 등 단기 채용 늘어

밸런타인데이와 각종 졸업식이 있는 2월은 단기 아르바이트 대목이다.

5일 알바몬에 따르면 이번달 가장 많은 알바 채용 공고를 내는 직종은 판매와 판촉이다. 특히 올해는 밸런타인데이와 정월대보름이 14일로 겹쳐 초콜릿부터 부럼 등 판매 품목도 다양하다.

밸런타인데이와 졸업식용 선물 판매는 구인·구직 1순위다. 대형 유통업계와 편의점 등에서는 특별 매대에서 일할 알바생을 대거 모집 중이다. 이벤트 업체에서도 구인 문의가 많아 대행사를 통해 사람을 구하는 경우도 많다. 졸업식 당일 꽃다발 판매 알바생 모집 공고도 줄을 잇는다. 급여는 하루 기준 7만원 내외가 보통이다.

손재주가 좋다면 선물 포장 알바도 제격이다. 기본적인 상자 포장부터 바구니에 선물을 예쁘게 담기, 리본 묶기 등이 주 업무인데 주요 백화점 선물 코너나 액세서리 전문점,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구인 공고가 많다. 급여는 시급으로 5000~6000원 선이다.

케이크 및 꽃바구니 배달도 이번달 단기 알바 대목 중 하나다. 밸런타인데이를 앞두고 배달 알바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2종 면허 소지자가 자격 대상이며 꽃집이나 빵집, 퀵서비스 업계 등에서 문의가 많다. 급여는 일당 6만원 수준이다.

알바몬 관계자는 "다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배달 알바의 경우 교통비 부담은 어떻게 할지에 대해 업체와 미리 합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윤희기자 ...

멘토보다 든든… 청춘 맞춤형 보험 탄생

메리츠화재 '청춘보험1401'

메리츠화재는 미래 한국 사회의 중심이 될 젊은 청춘들을 위해 구직급여지원금과 임신·출산질환, 고혈압·당뇨병 입원일당 등 특화된 신담보를 보장하는 '무배당 메리츠 나만의 청춘보험1401'을 출시했다.

열정(Passion)과 잠재력(Potential), 힘(Power)을 바탕으로 월드컵과 촛불시위 등을 거쳐 사회 패러다임의 변화를 일으키는 P세대(15~30세)가 주 가입 대상이다.

상품 구성에도 이런 특성들이 반영됐는데 우선 P세대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취업지원금, 임신중독 관련 보장, 레저 활동 중 사고 보장, 성인병적 리스크 보장 등 특화된 담보가 눈에 띈다.

취업지원금은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구직급여를 31일 이상 수령한 경우 구직급여 수령 31일째, 61일째, 91일째 등 총 3회에 걸쳐 가입금액을 지급한다.

임신중독과 관련해 고혈압이나 당뇨병으로 4일 이상 입원 시 120일을 한도로 입원일당을 지급해준다. 형사상 과실치사상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실손 보상을 통해 법적 리스크를 보장하며, 레저 활동 중이나 숙박을 동반한 여행 중 사고로 인한 상해 시에도 보장이 가능하다.

적은 비용으로 높은 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등 3대 진단비는 한 증권에 최대 50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체증형 특약을 함께 가입할 경우 가입 시점부터 매년 100만원씩 보상 금액이 늘어 20년 후에는 7000만원까지 늘어난다. 20년 만기 후에는 자동 갱신 시 체증된 7000만원에 대한 지속적인 보장이 가능해 한 증권으로 업계 최고 수준의 진단비를 보장받게 된다.

일당 지급에 있어서도 새로운 개념인 '종합입원일당'을 도입했다. 기존 상품이 질병·상해 입원일당을 3만원까지 가입하던것과 달리 질병·상해 입원일당(최고 5만원)과 중환자실 입원일당(10만원)을 합산해 첫날부터 15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박철중기자 ...

최고의 스펙은 성실·책임감

앞으로는 스펙보다 성실감, 책임감을 보여줘야 취업 관문을 뚫을 수 있을 전망이다.

5일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이 올 상반기 신입 채용 계획이 있는 기업 285개사를 대상으로 스펙 중심의 채용전형 변화 계획을 조사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44.2%가 스펙 중심 채용에서 벗어나도록 변화를 줄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88.1%의 기업들이 지원자의 스펙이 일정 기준만 넘기면 동일하게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화가 예상되는 채용전형은 면접이 85.7%로 가장 많았고 서류전형(11.9%), 인·적성 검사(2.4%) 등이 뒤를 이었다.

구체적인 변화로는 '실무면접 비중 강화'(33.3%, 복수 응답)를 가장 많이 꼽았다. '자격 조건 없는 완전 열린 채용 도입'(31%), '인성면접 비중 강화'(26.2%), '자유 기재 항목 등 자기 PR 기회 제공'(23.8%), '1·2차 등 단계별 심층면접 진행'(21.4%), '자격 조건 일부 폐지 등 기준 완화'(19%), '이력서 항목 줄이거나 양식 간소화'(16.7%) 등이 뒤를 이었다.

기업들이 스펙 대신 중요하게 평가하는 부분은 '책임감, 성실성 등 인성'(69%, 복수 응답)이 1위를 차지했다.

/서국희기자 ...

신흥국 주력 MS '윈도폰 반란' 꿈꾼다

새 CEO에 인도 출신 나델라·빌 게이츠도 복귀

전 세계 IT업계의 '공룡'이지만 모바일 시장에서만큼은 유독 맥을 못 추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MS)가 삼국지 제갈공명의 지략을 꺼내들었다. 모바일 시장의 열강인 애플과 구글에 맞대응하기보다는 신흥국 위주로 세력을 길러 천하를 삼분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모바일을 우선시하는 인도 출신 정통 엔지니어인 사티아 나델라(47) 수석부사장을 최고경영자(CEO)에 임명하고 창업자인 빌 게이츠도 기술고문으로 복귀시켰다.

세계 최대의 소프트웨어 기업 MS는 CEO 선정위원들의 만장일치 합의에 따라 나델라 수석부사장을 제3대 CEO로 임명했다고 4일(현지시간) 밝혔다.

1992년 MS에 입사한 나델라는 최근까지 엔터프라이즈와 클라우드 사업 담당 수석부사장을 맡고 있었다. 22년이나 근무한 덕분에 MS의 조직과 사업을 속속들이 잘 알고 있으며 내부 임직원들에게도 상당히 평판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델라 CEO는 이날 전 세계 MS 임직원들에게 보낸 e메일에서 "우리 산업은 전통을 존중하지 않는다. 오직 혁신을 존중할 뿐"이라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MS가 모바일 우선, 클라우드 우선인 세상에서 번영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MS가 이 같은 변화를 선택한 것은 인터넷 검색과 서비스는 구글에, 모바일 기기 분야는 애플에, 기업용 클라우드는 아마존에 뒤져있는 현실 때문이다. 오피스와 윈도 사업이 캐시카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지만 전임 CEO인 스티브 발머는 급변하고 있는 모바일 시장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시장조사기관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SA)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스마트폰 운영체제(OS) 시장에서 MS 윈도폰의 점유율은 부끄러운 수준인 3.2%에 그쳤다.

◆빌 게이츠 5년 만에 현업 복귀

2008년 현업에서 물러났던 초대 CEO 빌 게이츠(59)가 5년 만에 다시 현장에 복귀한 것도 MS가 모바일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키우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게이츠는 이날 이사회 의장직에서 물러나 기술고문을 맡았다. 특히 나델라 CEO의 요청에 따라 여유 시간의 3분의 1 이상을 MS에 할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입지가 상대적으로 약한 나델라 CEO가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바람막이' 역할을 하려는 의미로 분석된다.

업계 관계자는 "새로운 CEO를 맞이한 MS가 당장 모바일 시장에서 구글과 애플에 맞서기 힘들기 때문에 저가 전략을 앞세워 최근 윈도폰이 성과를 보이고 있는 아르헨·멕시코 등 신흥시장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게이츠와 나델라의 투톱 체제가 제대로 가동된다면 모바일 시장을 뒤흔들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illegible]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주 레드먼드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MS) 본사 캠퍼스에서 이 회사 제3대 최고경영자(CEO)로 이날 취임한 사티아 나델라(가운데)가 초대 CEO인 빌 게이츠(왼쪽), 제2대 CEO인 스티브 발머(오른쪽)와 함께 임직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MS 제공

스팸전화 1위는 '불법게임·도박'

불법 게임·도박 스팸 신고가 5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상 최대의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로 금융회사 전화영업(TM)이 금지되면서 대출 권유 스팸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KT 계열 모바일 콘텐츠 서비스기업인 kt cs는 스팸 차단 애플리케이션 '후후' 이용자들이 지난 1월 한 달간 신고한 스팸 전화 205만8903건을 유형별로 나눠본 결과 불법 게임 및 도박이 58만892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전달(12월)에 비해 5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반면 대출 권유는 TM이 전면 금지된 지난달 27일 이후 전주보다 3분의 1 가까이 줄어들면서 51만8891건으로 나타났다. 3위는 텔레마케팅(21만5823건), 4위는 성인·유흥업소(20만501건), 5위는 휴대전화 판매(17만4726건), 6위는 보험가입(9만9321건) 등이다.

7~10위는 광고 전화(8만8804건), 대리운전(7만9624건), 보이스피싱(5만8223건), 전화 유도(4만2068건) 등이 차지했다.

선재원 114사업본부장은 "후후를 통해 현재 하루 7만여 건의 스팸 신고가 들어오고 있다"며 "매일 업데이트되는 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DB)와 이용자들의 활발한 스팸 신고를 바탕으로 신뢰도 높은 스팸 차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국명기자

효성 美 자동차 카펫 시장 공략 본격화

효성은 세계 최대 자동차 회사인 GM에 자동차용 카펫 공급을 전년 대비 9배 이상 확대하고, 미국 시장 공략에 나선다.

효성은 또 포드, 크라이슬러에도 자동차용 카펫 공급을 추진 중이어서 빅 3 공급량을 100만㎡ 이상으로 확대하고, 북미 시장 전체 점유율도 6.2%로 확대해갈 계획이다.

효성은 국내에서 카펫의 원료인 나일론 칩부터 중간재인 나일론 원사, 완성품인 카펫까지 수직 계열화를 구축해 확보한 원가와 품질 경쟁력을 바탕으로 미국 앨라배마주 디케이터에 자동차용 카펫 생산 공장을 건립해 현지 생산 체제를 갖췄다. 이에 따라 대량 주문에도 안정적인 공급 능력을 확보해 빅 3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일관생산체제로 가격 경쟁력까지 갖춰 2018년까지 북미 시장 전체 자동차용 카펫 점유율을 12%대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조현상 산업자재PG장 겸 전략본부 부사장은 "효성의 산업 자재 PG는 타이어코드, 에어백용 원단, 안전벨트용 원사 등 자동차용 소재 분야에서 세계시장 1위의 품목을 다수 보유해 수출 역군으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균기자 [illegible]

천연 헤어크림 대박난 '8세 CEO'

글로벌 이코노미

꼬마 사장 성공비결 소개

할머니 '비단 머릿결'의 비밀은 뭘까. 물 없이도 목욕을 할 수 있을까.

최근 영국 BBC 방송은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어린 시절 창업해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꼬마 사장님 들의 성공 비결을 소개했다.

◆ 8세 소녀에서 직원 8명 둔 사장님으로

미국 뉴욕에서 여덟 살 때 헤어크림을 만들어 판매를 시작한 리아나 아처. 아처는 어린 시절 증조할머니가 천연 재료를 이용해 고운 머릿결을 관리하던 것을 눈여겨본 뒤 집에서 직접 제작에 나섰다. 이후 그는 이웃들에게 자신이 만든 헤어크림을 공짜로 나눠줬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제품에 대한 찬사가 쏟아졌고 돈을 주고 사겠다는 사람들이 하나 둘 생기기 시작했다.

10년 전 그는 지하실에서 여러 재료를 섞어가며 혼자 제품을 만드는 꼬마였지만 현재는 직원 8명을 이끄는 어엿한 사장님이다. 현재 그의 이름을 따서 만든 회사 '리아나'의 연 매출은 50만 달러(약 5억4000만원)에 이른다. 사업을 시작할 때엔 '애도 어린아이가 뭘 하겠느냐'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았다. 하지만 18세 대학생으로 성장한 아처는 더 이상 나이 때문에 겪는 설움은 없다. 그는 "나이가 어려도 열정만 있으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며 "어린 시절 관심 있는 분야에 과감하게 도전하라"고 했다.

리아나 아처 /BBC

◆ '화학 천재' 안술 사마르, 화학 게임 개발

안술 사마르는 화학 없이는 죽고 못 사는 '화학 천재'다. 그는 열두 살 때 화학을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궁리하던 끝에 '화학 게임' 만들기에 나섰다. 2년간 홀로 연구를 거듭한 끝에 사마르는 원소 주기율표를 이용한 카드 게임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 그는 14세 때 게임 세트 5000개를 만들어 모두 팔았다. 최근에는 이 게임을 스마트폰에서 할 수 있도록 모바일게임 애플리케이션으로도 제작했다.

사마르는 처음 게임 개발을 시작할 때 꿈을 크게 가졌다고 밝혔다. "꿈은 크게 꾸세요. 실패한다고 잃을 것도 없잖아요. 게임을 개발하지 못하면 학교에 가서 다시 공부하고 친구들하고 놀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 물 없이 목욕 '드라이 배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열혈 청년 루드윅 마리쉐인은 열일곱 살 때 물과 비누 없이 목욕을 할 수 있는 제품인 '드라이 배스'의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마리쉐인은 이후 각종 발명 대회에 참가해 아이디어를 설명하고 상금과 후원금 등을 받아 6년간 제품 개발에 몰두했다. 그 결과 물과 비누 없이도 깨끗하게 목욕을 할 수 있는 젤 형태의 제품 개발에 성공했다.

마리쉐인은 "세계 각국의 빈곤층은 물 부족으로 제대로 씻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면서 "남아공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처지에 놓여있다.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드라이 배스를 개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드라이 배스는 연구 기간 동안 아버지의 날카로운 비판과 지적 덕분에 한층 업그레이드됐다"면서 "타인의 비판을 통해 성장하는 게 성공에 이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오선이기자 [illegible]

www.imtcast.com
때론 달콤하게~
때론 상쾌하게~
때론 유쾌하게~
t나게 tv보자!
눈으로 즐기는 T-time t.cast
FX
SCREEN
FOX
DRAMA cube
FASHION
CINEf
FOXlife
E channel
t.cast
최강 컨텐츠 리딩 그룹!
E channel
SCREEN
DRAMAcube
FASHION
CINEf
FX

꼼꼼IT 리뷰 - 윈도8.1 에이서 아이코니아 W4

MS오피스 쓰기 편한 태블릿PC USB 포트 없어 은근 번거롭네

태블릿 PC는 장점이 많은 기기다. 그럼에도 업무와 같은 생산성을 높이는 그 무엇을 할 때 부족한 게 사실이다.

예를 들어 한글 문서 작업이나 파워포인트, 엑셀을 수정할 때 태블릿PC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10.1 또는 8인치대의 화면크기가 일단 작업하기에는 좁고 마우스가 없어 정확한 지점을 누르기도 어렵다.

특히 문서 작업을 할 때는 별도의 블루투스 자판을 쓰지 않는 경우 짜증이 극대화된다.

무엇보다 앱 장터에 있는 오피스 프로그램들이 한국인이 주로 쓰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와 호환이 여의치 않다.

윈도8.1 운영체제(OS)를 장착한 아이코니아 W4는 이러한 태블릿 PC의 단점을 극복하려는 시도에서 출발한다. 핵심은 일반 PC나 노트북에서 MS오피스를 쓰는 것처럼 이 기기에서도 같은 환경을 구축했다는 점이다.

쉽게 말해 안드로이드나 iOS를 사용하는 태블릿 PC는 MS오피스를 이용할 수 없거나 불편한 점이 많지만 W4는 이런 제약이 없다는 것이다.

MS의 주장대로 워드, 파워포인트, 엑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 편했다. 인텔 아톰 베이트레일 쿼드코어 프로세서를 장착해 웹 서핑 등의 구동 속도도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윈도8.1 태블릿PC의 강점인 'MS오피스 프로그램의 원활한 이용'은 타 태블릿 PC에서도 상당 부분 구현이 된 상태다. 게다가 W4의 가격은 48만9000원으로 동급의 안드로이드 제품보다 최대 20만원가량 비싸다.

노트북에 있는 USB 포트가 없는 까닭에 키보드, 마우스, 저장장치 등을 별도의 단자로 연결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W4에서 MS오피스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도 그대로 적용된다.

윈도8.1 W4는 태블릿의 한계를 뛰어넘으려 하고 있지만 기기 자체가 태블릿인 한계는 여전하다. /박성훈기자

<헤드폰+하이파이>

'헤드파이 시장' 볼륨 업!

고품질 재생·휴대기능 갖춘 다양한 음원 기기 보급따라 하이파이 취미 보편화 추세

'헤드파이' 시장이 조금씩 커지고 있다.

헤드파이는 고급 음향기기를 뜻하는 '하이파이'와 헤드폰의 합성어다. 마니아층의 비싼 취미로 인식됐던 하이파이 오디오가 일반 유저도 즐길 수 있는 보편화된 취미로 변하고 있다는 의미다.

FLAC와 같은 무손실 음원을 재생할 수 있는 스마트폰, 디지털 사운드를 원음에 가까운 아날로그 형태로 바꾸는 컨버터, 고품질 음원 자체를 들려주는 휴대용 플레이어 등 다양한 디바이스가 보급되면서 누구나 호사를 누리게 됐다.

즉 LP 재생용 턴테이블, 스피커와 앰프(증폭장치) 등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럭셔리 장비가 필요 없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제품은 아이리버 'AK10'이다.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음악을 하이엔드급의 오디오 사운드로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스마트폰용 포터블 디지털 아날로그 컨버터(DAC)다.

이 제품은 아이리버의 고급 음향 브랜드 아스텔앤컨의 핵심 기술인 DAC와 아날로그 앰프를 계승한 것으로 스마트폰에 내장된 디지털 음원 정보를 데이터로 추출해 AK10을 거쳐 원음에 가까운 아날로그 사운드로 구현해낸다.

▲ 젠하이저의 헤드폰 전용 앰프 'HDVD 800'(위) ◀ 아이리버 'AK10' ▶ 소니코리아의 고품질 음원 전용 워크맨 'NWZ-ZX1'

휴대용 DAC임에도 하이파이 오디오의 높은 스펙 기준을 충족하며 iOS,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은 물론 윈도폰 8까지 지원한다. 30만원대.

소니코리아는 고품질 음원 전용 워크맨 'NWZ-ZX1'을 선보였다.

음원 파일을 변환하는 등의 절차없이 처음부터 하이파이 데이터를 저장해 플레이하는 방식이다. 압축된 MP3 파일은 물론 다양한 무손실 압축 코덱을 지원하며 128GB의 넉넉한 저장 공간을 자랑한다.

알루미늄 프레임의 견고한 디자인은 패션 소품으로도 손색이 없다. 79만9000원.

조금 더 귀를 호강시키고 싶다면 젠하이저의 헤드폰 전용 앰프 'HDVD'를 추천한다.

최고급 버브라운 사의 컨버터를 장착해 디지털 오디오 데이터를 균형감 있게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시켜준다. 즉 하이엔드 오디오 소스의 전체 주파수 스펙트럼을 충실히 전송할 수 있다. 이 회사의 'HD 800', 'HD 700' 등 하이엔드 헤드폰에서 최적의 성능을 발휘한다. 290만원.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페이스북 10주년 '회상하기' 첫선

페이스북이 창립 10주년을 기념하는 '회상하기' 기능을 선보인다.

페이스북은 지난 4일 창립 10주년을 맞아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중요한 순간을 사진 혹은 비디오 뷰로 선보이는 '회상하기' 기능을 5일부터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회상하기 링크(www.facebook.com/lookback)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한편 페이스북은 10년의 발자취를 인포그래픽으로 제작해 화제를 모았다. 가입 대상이 전 세계인으로 확대된 2006년 9월,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은 '좋아요' 버튼이 처음 등장한 2009년 2월 등의 연혁뿐 아니라 누적 페이스북 메시지 전송 건수가 7조8000억 건에 이른다는 흥미로운 수치를 한 화면에 담았다.

창립자이자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인 마크 저커버그는 "지난 10년은 믿을 수 없는 여정이었으며, 그 놀라운 여정에 일부가 될 수 있었다는 것에 끝없는 감사를 느낀다"면서 "모든 이들의 연결을 돕고 다양한 커뮤니티를 지원하기 위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장윤희기자 unique@

중년층 사용 편한 카메라 '스타일러스1' 올림푸스한국은 등산, 여행을 즐기는 중년층 및 렌즈 교환 없이도 다양한 사진 표현을 원하는 카메라 입문자들을 위한 올림그십 콤팩트 카메라 '스타일러스 1'을 5일 공개했다. 슬림한 디자인임에도 광각부터 망원을 아우르는 초점 거리(28~300mm)를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가격 89만9000원.

'찍스' 사진인화 30% 할인

소중한 추억이 담긴 사진을 저렴하게 보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디지털포토 찍스는 졸업·입학 시즌을 맞아 30% 할인된 가격에 사진 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희망대길 봄맞이 할인 이벤트'를 25일까지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벤트 대상은 3×5 사이즈부터 A3 사이즈까지 일반사진인화 전 사이즈다. 가장 인기있는 3×5 사이즈의 경우 장당 77원에 불과하다.

한편 찍스 사진 인화는 고유의 디지털 이미지 최적화 기술을 이용하고 최고급 디지털 사진인화기와 정품 인화지, 약품을 사용해 고품질의 사진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국명기자

에어쿠션 달린 아이폰5·5S 케이스

아이폰 고유의 디자인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보호 기능까지 더해진 케이스가 등장했다.

모바일 액세서리 글로벌 명품 브랜드 슈피겐SGP는 전 세계 20만 개 판매 기록을 올리며 해외에서 인정받은 아이폰5·5S용 케이스 '울트라 하이브리드'를 출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제품은 충격 흡수가 우수한 우레탄(TPU) 소재의 테두리와 후면의 투명한 크리스탈클리어 소재를 복합적으로 사용해 아이폰의 디자인과 감성을 그대로 표현하면서 기기 보호 기능까지 강화한 점이 특징이다.

충격에 취약한 4개의 각 모서리마다 '에어쿠션'이 적용돼 있어 파손 우려도 최소화했다.

18일까지 네이버 샵N(shop.naver.com/spigen)에서는 35% 할인된 1만2900원에 살 수 있다. /이국명기자 kmlee@

묵호항 수산물축제에서는 수산물 경매·낚시 체험·공짜 이벤트 등 관광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가득하다. 사진은 지난해 개최된 축제에서 진행된 수산물 경매 장면

오징어 먹고 붕장어 잡고 '아싸!'

동해 묵호항 개항 73주년 수산물축제 7~15일 열려
대게·문어숙회 등 신선한 수산물 무료 시식 등 매력

오징어로 유명한 강원 동해 묵호항에서 풍성한 수산물을 다양한 방법으로 즐길 수 있는 축제가 열린다. 바로 오는 7일부터 15일까지 9일간 묵호항 일원에서 열리는 '2014 묵호항 개항 73주년 기념 수산물축제'다. 신선한 수산물과 다양한 체험이 가득한 묵호로 떠나보자.

◆싸도 너~무 싼 묵호 수산물

축제는 우선 관광객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수산물을 맛보고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수산물 금액을 당일 경매가의 50% 수준으로 결정해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경매를 진행하는 묵호항 수산물 반짝 경매가 축제 기간 내내 이어지며 수산물 직매장 대박 할인행사와 동해산 수산물 상설장터 등도 준비된다. 또 관광객들이 구입한 수산물을 바로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해주는 수산물 살아주는 코너가 마련되고 묵호항 수산물 먹거리 시식 체험에서는 대게, 가자미회무침, 문어숙회, 잡어회무침 등 신선한 묵호의 수산물을 공짜로 맛볼 수 있다.

◆무료로 참여하는 특별한 즐길거리

이와 함께 축제에서는 수산물과 친해질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만날 수 있다.

먼저 가족 단위 관광객을 위한 수산물 낚시 체험이 눈에 들어온다. 묵호항 어판장 내 체험장에서 열리는 체험은 현장 선착순 접수로 진행되며 수조에 방류한 대게나 오징어 등의 수산물을 낚시로 잡게 된다.

게다가 2명 1팀으로 참가해 붕장어를 맨손으로 옮기는 붕장어 릴레이 게임이 이어지고 추억의 묵호항 사진전, 묵호항 수산물 노래왕 선발대회 등의 부대행사도 다양하게 어우러져 참여객들에게 많은 볼거리가 제공된다. 특히 참여가 가능한 축제는 모두 무료로 진행된다.

◆어선 승선하고 드라마도 따라하고

묵호에서만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가득하다. 8일 토요일에는 축제의 본격 시작을 알리는 특집 공연이 개최되고 선상 불꽃페스티벌이 겨울 밤바다를 수놓으며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여기에 어선을 타고 묵호항 일원을 감상할 수 있는 어선 승선 체험 행사가 1일 4회 운영되고 드라마 '상속자'의 명장면을 따라 해보는 논골담길 상속자들 따라잡기 체험에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또 중랑헌 방문의날 행사도 진행되고 무대에서는 축제 기간 동안 품바 공연을 비롯한 다양한 상설 공연이 이어진다.

날짜 2월 7~15일(금~토요일)
장소 강원 동해시 묵호항 일원
문의 동해시축제추진위원회 (033)531-1020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묵호등대 운치 취한 연인들 '미워도 다시 한번'

오징어를 비롯한 수산물로 이름값이 올라간 동해지만 동해에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명소들이 많이 있다.

◆'영화의 고향' 일출공원

묵호등대가 있는 일출공원(왼쪽 사진)은 영화 '미워도 다시 한번'의 촬영지로 잘 알려진 동해의 명소다. 특히 시원한 동해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절경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 지난 2003년 5월에는 '영화의 고향' 기념비가 세워졌으며 등대의 역할과 역사를 즐겁게 배울 수 있는 등대홍보관과 휴게시설 등이 연중 개방돼 쉼터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

◆천곡천연동굴 체험공원

동굴 생성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둘레길 지형을 맨눈에 볼 수 있도록 조성된 천곡천연동굴 자연학습 체험공원은 동굴을 따라 둘레길 및 우발레 지역의 자연 식생을 직접 관찰할 수 있는 곳이다.

둘레길 주변을 따라 목재 데크가 설치됐으며 야생화 체험공원에서는 100여 종 5만여 본의 수목 및 야생화도 직접 관찰할 수 있다. 더욱이 가족 단위 방문객들을 위한 야외 학습장도 마련돼 아이들 교육에도 도움이 된다.

◆논골담길

밤이면 오징어배의 화려한 불빛으로 꽃밭이 되는 묵호바다가 내려다보이는 산동성이 마을. 논골3길은 뱃사람들과 시멘트 무연탄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만들어진 마을이다.

논골담길(오른쪽)은 이런 마을 사람들의 파란만장했던 삶의 이야기가 그대로 담긴 벽화 골목이다. 논골담길에서는 매일 새벽 명태와 오징어를 가득 실어 나르는 어선들로 활기를 띠었던 묵호항과 다양한 인생 스토리가 담긴 추억을 만날 수 있다. /황재용기자

구석구석

◆노리매 매화축제

– 날짜 2월 8일~3월 9일
– 장소 제주 서귀포시 노리매 일원

'담미향-30일간의 매화여행'이란 주제로 개최되는 축제에서는 매화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다. 매실 새총 쏘기, 매화엽서 만들기, 보물찾기 등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행사와 매실차·매실주 시음회, 매화 나무 만들기 등의 행사도 이어진다. 또 가족 단위 방문객들을 위한 노리매 사진관과 노리매 미션 게임 등도 준비된다.

◆칠보산 달집축제

– 날짜 2월 14일
– 장소 경기 수원시 호매실중학교

정월 보름을 맞아 열리는 축제는 먼저 다양한 전통놀이를 마련했다. 정월 대보름의 대표적인 놀이인 쥐불놀이와 달집 태우기를 비롯해 윷놀이, 제기차기 등을 즐길 수 있으며 쥐불놀이 깡통과 소원 종이, 달집도 직접 만들 수 있다. 게다가 한 해의 모든 액을 막고 복을 비는 비나리, 사례 만복을 기원하는 고사, 석전 등은 색다른 재미를 더한다.

◆해운대 달맞이 온천축제

– 날짜 2월 14일
– 장소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수욕장

해운대구청 앞 온천비에서 신라 진성여왕 시절 나라의 평안과 안녕을 기원하는 대례성대무를 시작으로 해운대 온천욕으로 천연두가 씻은 듯이 나았다는 진성여왕 피접 행렬, 취타대와 용 캐릭터의 퍼레이드가 이어진다. 특히 오후 4시50분 달이 뜨는 시각에 맞춰 해운대해수욕장 백사장에서는 달집 태우기가 진행되며 오륙귀범 행사, 온천무용제 등도 감상할 수 있다.

편의점은 지금 '초콜릿 바다'

14일 밸런타인데이 겨냥 다양한 마케팅 경쟁 돌입

편의점 업계가 밸런타인데이를 앞두고 본격적인 경쟁에 돌입했다.

다양한 카드 제휴 할인 서비스와 포인트 추가 덤 증정 행사 등의 이벤트를 앞세운 데다 저가형 중심의 DIY족 겨냥 상품도 공통적으로 내놔 예년과 다른 모습을 보였다.

먼저 씨유(CU)는 모바일로 주고받는 마음을 운영한다.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의 선물하기 메인 화면 상단에 나오는 'CU 밸런타인 초콜릿 모음전' 배너를 누르고 원하는 상품을 선택하면 된다.

GS25는 올해 초콜릿 세트 상품 89종 중 74%에 해당하는 66종을 1만원 이하 저가 상품으로 준비했다. DIY족들을 위한 일반 초콜릿 할인의 1+1과 2+1 행사도 벌인다. 로쉐세트 3종을 '나눔초콜릿'으로 선정하고, 판매 금액의 1%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전달할 계획이다.

세븐일레븐은 기획 세트 상품의 비중을 축소하는 대신 로쉐 등 기존 베스트 상품을 포함한 저가형 일반 상품 구색을 강화했다. 기존 브랜드 상품을 이용한 DIY 타워 상품도 새롭게 선보이고 프랑스 브라운 초콜릿 점유율 1위인 시모아(CEMOI) 브라운 초콜릿 2종(클래식, 아몬드)을 단독 출시하며 상품의 다양성을 높였다.

미니스톱도 케이스 초콜릿 바구니 상품 등의 기획 상품 71종과 미니스톱 각 점포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해 판매하는 실속 포장 DIY 상품이 눈길을 끈다. 각각의 점포에서 준비된 포장 봉투에 담고 리본을 묶어 고객에게 제공하는 형태로, 가격 상승 요인인 과대 포장을 빼고 내용물이 알찬 상품에 주력했다. 이를 위해 귀여운 소년·소녀 동물 모양의 종이백을 별도로 준비했다. /정영일기자

간편식, 집밥 맛에 도전

버섯육개장·불고기·볶음밥 직접 해먹기 번거로운 메뉴 레토르트 제품으로 출시돼

1인 가구와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면서 식품업계가 '나홀로 손님'을 잡기 위한 간편식 출시에 열을 올리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발간한 '2013 가공식품 세분화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로 간편식 구매 경험률이 2011년 40.5%에서 2012년 55.3%로 크게 증가했다.

이런 가운데 가정에서도 쉽고 편하게 '집밥'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메뉴가 개발·시판되고 있다.

대상FNF 종가집의 '버섯 육개장'과 '사골 우거지국' 등 2종으로 구성된 '데이즈 간편국 2종'은 파우치 형태로 데우기만 하면 간편하게 따뜻한 국물을 즐길 수 있다.

버섯 육개장은 느타리버섯·소고기·노란대 등 각종 채소를 얼큰한 육개장 육수에 우려내 개운한 풍미를 느낄 수 있다. 사골 우거지국은 사골 농축액 육수를 기본으로 신선한 국내산 배추 우거지와 소고기를 푸짐하게 넣은 것이 특징이다.

최근 가정 간편식 시장에 뛰어든 신세계푸드의 '요리공식(食)'은 삼원가든 소 불고기와 송추가마골 돼지고추장불고기 등 유명 맛집과 제휴해 맛을 그대로 재현했고 개발 과정에 이혜정 요리연구가를 참여시켜 대중화했다. 손질된 재료와 양념이 함께 포장돼 간편하게 요리해서 먹을 수 있는 RTC(Ready To Cook)와 데우기만 하면 바로 먹을 수 있는 RTH(Ready To Heat) 제품 등 다양한 형태가 출시됐다.

청정원이 새롭게 선보인 '밥물이 다르다 볶음밥' 3종도 집에서 간편하게 볶음밥을 즐길 수 있는 제품이다. 맛있는 볶음밥의 핵심인 '밥'을 각각 표고버섯·강황·황태를 우려낸 물로 지어 밥알 안쪽까지 각각의 원료의 풍미와 향, 색감이 고루 배어있다. /정영일기자 jyw@metroseoul.co.kr

'1955 버거' 먹고 1955 문화 즐겨요 맥도날드는 최근 고객 재뉴로 다시 선보인 '1955 버거' 출시를 기념해 오는 16일까지 전국 주요 맥도날드 매장에서 1950년대의 맥도날드 점원 복장, 1955 트럭과 함께 가죽 재킷, 나팔바지 등 당시 유행했던 복장을 한 퍼포머들이 깜짝 등장해 오른쪽 음악에 맞춰 신나는 게릴라 공연을 선사하는 이벤트를 벌인다고 밝혔다. /맥도날드 제공

십자수 받을까 걱정인 남친들

밸런타인 선물 선호도 조사

남자들은 밸런타인데이 선물로 지갑·벨트 등 잡화 상품을 선호하는 반면 '십자수·인형 등 핸드메이드' 선물은 기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롯데백화점은 밸런타인데이를 맞아 지난 1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20~60대 백화점 방문 고객 남녀 각 1000명을 대상으로 밸런타인데이 선물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설문조사는 밸런타인데이에 맞춰 남성 고객에게는 '받고 싶은 선물'에 대한 내용을, 여성 고객에게는 '초콜릿과 선물 구입'에 대한 중복 응답이 가능한 질문으로 구성됐다.

남성들이 가장 선호하는 선물은 응답자의 35%가 선택한 지갑·벨트였고 의류(19%), IT·전자기기(16%)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남성들이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은 응답자 62%가 답변한 인형·십자수 등 핸드메이드 선물이 차지했다.

여성들이 주고 싶은 선물은 지갑·벨트(38%), 향수·화장품(35%), 의류(23%) 순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IT 전자기기 선물에 대한 남녀의 시각 차다. 남성은 10명 중 1명 이상이 받고 싶은 선물로 IT·전자기기를 선택했지만 여성은 1%만이 주고 싶은 선물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밸런타인데이 선물에 대한 호감도를 묻는 질문에 여성 응답자의 58%가 '초콜릿을 주겠다', 74%가 '선물을 사주겠다'고 답변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적정 선물 가격대는 남성과 여성 응답자의 42%가 10만~20만원대를 선택했다. 이어 20만~30만원(24%), 10만원 이하(23%)가 치열한 2위 경쟁을 벌였다.

또 받고 싶은 선물을 미리 알려주는 것에 대한 질문에는 남성의 94%, 여성의 90%가 '좋다'고 밝혔다. /서승희기자 sshi@

강강술래 "아로니아 킹스베리 쏩니다"

이달말까지 홈피 이벤트 한우곰탕 할인행사 지속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가 명절 피로와 스트레스, 매서운 한파로 인해 감기나 독감 등으로 고생하는 고객들의 면역력을 높이고 기력 보충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이벤트를 벌인다.

이달 말까지 홈페이지(www.ssul.com) '이벤트'에 신청 댓글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아로니아 킹스베리를 증정한다.

명지대 산학협력단의 '명지 아로니아 킹스베리'는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이 블루베리의 7배, 포도의 80배 이상 함유돼 있으며 색소·방부제·향료·설탕을 일절 넣지 않아 피로 해소와 노화 방지 등 각종 성인병 예방에 좋다.

온라인 쇼핑몰(sullaimall.com)과 전화 주문(080-925-9292)을 통해 이달 말까지 한우사골곰탕 대용량 세트(800㎖ 5팩·15인분)는 3만7800원, 소용량 세트(350㎖ 5팩·10인분)는 2만2000원에 30% 할인 판매한다.

HACCP 인증시설에서 100% 한우로만 우려내 맛이 진하며 방부제·색소·조미료 등을 일절 넣지 않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 레토르트 포장을 통해 실온에서도 9개월까지 보관 가능하며 봉지째 데워 먹을 수 있어 조리도 간편하다.

100% 한우갈빗살로 만든 적쇠판 우떡갈비(1박스·360g)와 국내산 돼지고기를 70%나 넣은 촉촉한 돈너비아니(2박스·720g)로 구성된 '웰빙세트'도 40% 할인된 2만8300원에 판매한다.

100% 국내산 돼지 등심 부위를 통째로 사용한 통등심돈가스(3박스·2.16㎏)는 3만1900원, 100% 자연 치즈를 사용한 모짜렐라돈가스(3박스·2.16㎏)는 3만6000원에 구매 가능하다. 영양간식 갈비맛 쇠고기육포(50g·6봉)도 2만5200원에 선보인다. /정영일기자

'1조원 에센스' 아직 몰라?

브랜드 매출 이끄는 독보적 인기의 국내외 '스타 제품'들 눈길

모노그램 스피디 백, 'No.5 향수', 갈색병의 공통점은 모두 브랜드 철학을 담고 있는 스테디셀러다. 굳이 브랜드명을 언급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인정하는 이 제품들은 브랜드를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업계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실제로 샤넬의 'No.5' 향수는 1921년 출시 이래 전 세계적으로 매 5초마다 한 병씩 판매되고 있으며, 갈색병이라 불리는 에스티 로더의 '어드밴스드 나이트 리페어'는 1982년부터 32년간 전 세계에서 한 해 40만 병, 1분에 약 8병이 팔리며 안티에이징 화장품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다.

이처럼 '스타 제품'은 브랜드 전체 매출을 움직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내에서도 해외 사례와 마찬가지로 브랜드 매출을 주도하고 있는 베스트셀러 아이템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

설화수의 '윤조에센스'는 최근 총 2000만 개가 넘게 팔리며 누적 판매액이 1조원을 돌파했다. 국내 화장품 브랜드 중 단일 품목으로는 처음이라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1997년 출시된 윤조에센스는 세안 후 스킨, 로션보다 먼저 바르는 '부스팅 에센스' 개념을 최초로 도입해 지금까지 17년째 설화수 전 제품 중 매출 1위를 지키고 있다.

가방 브랜드 쿠론 역시 시그니처 아이템인 '스테파니'와 함께 무섭게 성장하고 있다. 2010년 석정혜 디자이너가 론칭한 이 브랜드는 다음해 코오롱인더스트리 FnC가 인수해 운영하기 시작했는데, 매년 매출이 2배 이상 오르고 있다. 특히 패션 피플들 사이에서 '잇 백'으로 자리 잡은 스테파니 가방은 2012년 5만1400여 개, 2013년 1년 가예만 1만 개가 팔렸다. 덕분에 2011년 120억원이던 쿠론의 매출액은 2012년 400억원에 이어 2013년엔 600억원을 넘어섰다.

잡화 브랜드 럼레이먼셋볼은 3족이 1켤레로 이뤄진 독특한 콘셉트의 론니슈즈를 앞세워 패션 잡화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떠올랐다. 특히 지난해 11월에 진행된 '론니데이' 행사 때는 주요 포털사이트 검색어 상위권에 론니슈즈가 종일 오르내렸으며, 3일간 27개 매장에서 15억원의 매출을 거뒀다. 이는 평소 주말 매출의 10배 수준이다. 회사 측은 2012년 80억원 매출에서 지난해 매출 300억원을 기록하며 약 4배 가까이 성장했다고 전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베스트셀러 아이템 하나가 브랜드를 먹여 살린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 영향력은 크다"면서 "때문에 업체마다 스타 제품을 탄생시키기 위해 다양한 연구 개발 및 마케팅에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박지원기자 pjw@metroseoul.co.kr

개원의 위한 산부인과 연수강좌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

15일 이대목동병원 2층

이화여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산부인과학교실은 오는 15일 1시 50분 이대목동병원 2층 대회의실에서 '개원의를 위한 산부인과학교실 연수강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강좌에서는 각 분과별인 산과, 생식기내분비, 종양 등 3파트의 최신 지견이 발표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산과 파트에서는 ▲임신과 동반되는 피부질환(최유원 이화의대 피부과 교수) ▲임산 중 양막보존제의 이와 쉼(한유정 관동의대 산부인과 교수) 등을 다룬다. 생식기내분비 파트에서는 ▲개경 여성의 건강보조제(전계진 이화의대 가정의학과 교수) 외 2개 주제를, 종양 파트에서는 ▲부인암을 예방하는 식이와 생활 습관(주웅 이화의대 산부인과 교수) ▲진료기록부와 관련한 법적 문제(성용남 박인환동범률사무소 변호사) 등의 강연을 선보인다.

/서승희기자

'소치 金' 딸 때마다 초콜릿 주고 아이스링크 할인 5일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 아이스링크에서 열린 롯데월드 어드벤처 '저소득층 아이들 아이스링크 체험' 행사에서 아이들이 피겨스케이팅을 배우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롯데월드 아이스링크는 동계올림픽 기간 금빛 승전보가 전해지면 그다음 날 어린이들에게 금빛 초콜릿을 증정하고, 전 고객에게 아이스링크 3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롯데월드 어드벤처 제공

KT&G 저소득층 자녀에 2억 상당 교복 제공

KT&G복지재단은 전국 저소득 가정의 중·고교 신입생 800명에게 총 2억원 상당의 교복을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KT&G복지재단의 지역센터와 KT&G 지역본부가 추천한 저소득 가정의 신입생들 가운데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최종 선정됐다. 이들에게는 1인당 25만원 상당의 교복상품권을 제공한다.

KT&G복지재단은 2004년부터 지역 밀착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복네트워크 복지센터' 8곳을 운영하고 있다.

별 따다 잎사귀 따다 수놓은 주얼리

올봄 사랑스러운 모티브 큐빅 세팅한 화려한 대세

올봄엔 보다 화려한 주얼리가 유행할 전망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별, 큐피드 등 사랑스러운 모티브와 큐빅 세팅이 돋보이는 신상 아이템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다.

모나코의 패션 주얼리 브랜드 에이프엠 모나코는 2월 신제품으로 '발렌타인 컬렉션'을 선보였다.

장식용 사랑과 별·꽃 등을 주제로 발렌타인데이가 주는 달콤함과 풋풋함을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컬렉션은 알록달록한 색감이 특징인 '드라제'(장식용 사탕), 골드·화이트 색상이 돋보이는 '콘스텔라씨옹'(별자리), 가죽 소재 끈으로 구성된 브레이슬릿 '쁘띠 퍼유'(작은 잎사귀), 비너스와 큐피드의 화살을 모티브로 한 '비너스' 등 4종이다.

미니골드가 내놓은 '14K 올레 투주 귀고리' 4종은 메리버드·플라워밴드 등 화려한 큐빅 세팅이 돋보인다.

메리버드 귀고리는 깔끔한 라인과 큐빅 세팅으로 정장·캐주얼에 모두 잘 어울리는 제품이며, 플라워밴드 귀고리는 플라워 스타일의 디자인에 전체적으로 큐빅이 세팅돼 화려하다.

/박지원기자

클락스 신는 비스트·르까프 걸친 이하늬…

봄 시즌을 앞두고 패션업계에 새 모델 기용 바람이 거세다. 브랜드별로 자사의 분위기에 맞는 인기 배우, 아이돌 등을 대거 발탁했으며, 모델을 공개하기 전부터 다양한 이벤트로 소비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신발 브랜드 클락스는 아이돌 그룹 비스트를 전속모델로 선정하고 국내시장 공략에 나선다. 회사 측은 "비스트의 모던하면서도 세련된 분위기가 브랜드 정체성과 맞아떨어졌다"고 밝혔다.

화승 스포츠 브랜드 르까프는 배우 이하늬를 새 얼굴로 선정했다. 회사 측은 올 한 해 이하늬의 밝고 건강한 이미지를 앞세워 TV 광고, 화보촬영 등 다양한 마케팅을 펼칠 예정이다.

아웃도어 브랜드 노스케이프는 새로운 남성 모델을 발탁하고 홈페이지에서 신규 모델 맞히기 '티저 이벤트'를 진행한다.

공개된 티저 이미지와 동영상에는 배우 아시원자 외모 갖는 ○○ 남성 모델의 실루엣만 보이게 궁금증을 더욱 자극하고 있다. 이미지와 영상 힌트를 참고해 12일까지 댓글로 새 모델의 이름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2명에게 익스트림 아웃도어 전문가형 방수 재킷을 증정한다.

/박지원기자

DHC 신제품 출시 이벤트

DHC는 신제품 '아로마 밤 내츄럴 밸런스'와 '아이&립 메이크업 리무버' 출시를 기념해 이벤트를 실시한다. 아로마 밤 내츄럴 밸런스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건조함이 느껴지는 모든 부위에 사용할 수 있는 멀티 밤이다. 아이&립 메이크업 리무버는 식물성 보습 성분을 함유해 메이크업을 자극 없이 깔끔하게 지워준다. DHC는 홈페이지에 제품 기대평을 댓글로 남기는 고객에게 정품 체험의 기회를 준다.

“난 리얼사운드 고집하는 워커홀릭”

솔로 데뷔 10주년 기념 '엠텐'발표 신화 이민우

원조 아이돌 그룹 신화의 멤버 이민우(34)가 솔로 데뷔 10주년을 기념한 앨범 '엠텐(M+TEN)'을 발표했다. 지금은 자연스러운 형태가 된 아이돌 그룹 멤버의 솔로 활동 병행을 최초로 시도한 그는 아이돌계의 신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2009년 발표한 '미노베이션' 이후 5년 만의 새 앨범이다. 공백이 길어진 이유는.

병역을 마친 후 곧바로 신화 활동을 하느라 공백이 길어졌다. 신화에만 올인했다. 오늘부터 방송 활동을 시작하는데 5년 만에 솔로로 무대에 설 생각을 하니 벌써 설렌다.

–음악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나.

사운드의 차이다. 리얼 사운드를 좋아해 콘서트 때도 올 라이브 밴드 반주만을 고집했었다. 10년 이상 그렇게 해오다 보니 어떤 앨범에서도 고급스러운 리얼 사운드를 추구하게 됐다. 작사와 편곡 작업에 수정을 거듭하다 보니 시간이 오래 걸렸다.

–이번 앨범에는 한 곡도 작곡을 하지 않은 것이 특이하다.

매번 타이틀곡은 직접 썼는데 굳이 모든 것에 다 욕심을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신화 활동에 전념하면서 시간적인 여유도 부족했다. 2주 동안 8곡을 쓰기도 했는데 결국 욕심을 버리기로 마음먹었다. 외부 곡을 받아 공동 작업을 하며 다른 부분에 좀 더 신경 썼다.

–대중성과 자신만의 스타일 사이에서 고민했을 것 같다.

2014년 첫 일출을 보며 빌었던 소원이 부모님의 건강과 즐기며 활동하는 것이었다. 올 한 해는 무조건 즐기면서 하고 싶다. 물론 1위를 하면 좋겠지만 이미 해봤으니까 그건 후배들의 몫인 것 같다. 내가 받았던 만큼 베풀면서 활동하며 후배들에게 본보기가 되고 싶다.

–춤 실력이 탁월한 신화의 멤버에서 실력 있는 프로듀서이자 솔로 가수로 성장해왔다.

(SM엔터테인먼트) 연습생 때 이수만 선생님이 솔로 데뷔를 제안했다. 그때는 남자들끼리의 끈끈한 관계가 좋아서 그룹 활동을 고집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솔로분을 준비해왔다. 작곡은 (SM엔터테인먼트 프로듀서인) 유영진 형님에게 배워 1999년부터 곡을 쓰기 시작했다. 악기와 기계들을 사 모으고 독학으로 작곡을 했다.

–쉬지 않고 자기 계발을 해온 이유가 있나.

든든한 신화 멤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에 도전할 수 있었다. 곡을 쓰는 일이든 패션 공부든 아티스트로서 자질을 가지려면 스스로 전문가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만 하다 보면 외롭지 않나.

20대 때는 기계처럼 앞만 보며 달려왔다. 30대에는 주위를 둘러보면서 미래를 준비하느라 여전히 바쁘다. 혼자서도 잘 놀지만 워커홀릭인 나를 이해해주는 건강하고 착한 여자가 옆에 있으면 좋겠다. 예전에는

> “이번 음반 작곡 안해
> 작사·편곡 내 손 거쳐
> 1위 욕심은 버렸어요
> 무대 무조건 즐기겠다
> 여친 빨리 생기길 바라”

마흔 살 안에는 무조건 결혼하려고 했는데 평균 연령이 높아졌으니 좀 더 여유를 가져도 되지 않을까. 운명의 여인은 언젠가 나타날 거라 믿는다.

–요즘 음악 외에 가장 관심을 갖는 건 뭔가.

엠넷 '응답하라 1994'에 푹 빠져있었다. 신화 '장미의 전쟁'에 출연했을 당시에 함께했던 이우정 작가, 이명한 PD 등 제작진들이 함께 만든 거라 특별히 다 애착이 갔다. 무엇보다 민도희의 걸쭉한 육성을 듣는 순간 뒷가에 홀린 듯 끈테로 팬이 됐나. 요즘은 '별에서 온 그대'. 열혈 시청자다. 전지현씨는 정말 늙지 않는 것 같다. 혼자 하는 연기가 정말 훌륭하다. 그나저나 (극중에서) 김수현이 죽으면 안 되는데 걱정이다.

–올해 계획은.

2월에 앨범 활동을 하고 3월에는 신화 16주년 기념 콘서트를 연다. 앤디가 같이 무대에 서지 못하지만 앤디가 없는 아쉬움까지 만회하도록 좋은 공연을 보여주겠다. 4~5월에는 솔로 아시아 투어에 나선다. 하반기에는 신화 새 앨범 준비를 하고... 그럼 어느새 한 해가 훌쩍 지날 것 같다.

/유순호기자 sunc@metroseoul.co.kr
사진/황정욱(H컴퍼니) 디자인/박은지

공유하기

2월 11일 첫방송 / 매주 화 밤 11시 tvN 방송

가인이 6일 발표한 세 번째 미니앨범 재킷 이미지(왼쪽). 가인에 이어 이달 차례로 컴백할 박지윤(가운데)과 선미.

솔로 여가수 '3색 전쟁'

성숙미 앞세운 가인 복귀 이어 선미·박지윤 잇따라 컴백

걸그룹들의 섹시 열풍이 지나고 성숙함으로 무장한 솔로 여성 가수들의 경쟁이 시작된다.

여성 그룹 멤버 중 솔로로 가장 성공적인 활동을 벌인 것으로 평가받는 브라운아이드걸스의 가인은 6일 세 번째 미니앨범 '진실 혹은 대담'을 발표했다. 솔직하고 담담한 주체적인 여성상을 내세워온 가인은 퇴폐와 섹시미가 공존했던 과거 이미지를 뛰어넘는 매력을 전할 예정이다.

브라운아이드걸스와 아이유의 앨범을 제작한 조영철 프로듀서가 총괄 프로듀싱을 맡았고 박진영·이민수·김이나·G.고릴라 등 실력파 아티스트들이 제작에 참여했다. 또 이효리가 작사·작곡한 '블랙&화이트', '우리 사랑하게 됐어요'를 잇는 조권과의 두 번째 듀엣곡 'Q&A' 등도 관심을 모은다.

타이틀곡 '진실 혹은 대담'은 연예인에게 독이 될 수 있는 소문이라는 주제를 가상의 캐릭터로 표현한 펑키팝 장르의 곡이다.

원더걸스 출신의 선미는 17일 미니앨범으로 컴백한다. 지난해 8월 싱글 '24시간이 모자라'를 발표해 빅히트를 기록한 선미는 자신만의 색깔을 뚜렷하게 보여줄 음악들과 개성 강한 퍼포먼스로 2연속 흥행을 노린다. 선미는 '제2의 성인식'을 표방한 '24시간이 모자라'로 박지은에 버금가는 매력을 선사했다.

그는 최근 극비리에 뮤직비디오 촬영을 마치며 막바지 컴백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베테랑 솔로 여가수 박지윤도 컴백을 눈앞에 두고 있다. 지난해 10월 '미스터 리'를 발표하며 넉 장의 연작 싱글을 발표하겠다는 계획을 전한 박지윤은 두 번째 싱글 작업에 한창이다. 지난 앨범 활동 당시 운동으로 단련한 탄탄한 몸매를 공개했던 그는 특유의 섹시한 매력과 성숙함으로 차별화된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최근 신곡 뮤직비디오 촬영을 마쳤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아이돌 그룹 발라드 릴레이

태연 종현 필두 순차 공개

정상급 아이돌 그룹의 메인 보컬리스트들이 감미로운 발라드를 릴레이로 발표한다.

SM엔터테인먼트는 10일부터 4일 동안 발라드 프로젝트인 SM 더 발라드 두 번째 앨범 '브리드'의 수록곡을 순차적으로 공개한다.

10일 소녀시대 태연(사진 왼쪽)과 샤이니 종현(오른쪽)이 호흡을 맞춘 타이틀곡 '숨소리'의 한국어 버전을 시작으로 11일 종현과 엑소 첸이 부르는 '하루', 12일 태연의 솔로곡 '셋 미 프리'가 차례대로 공개된다.

마지막 날인 13일에는 앨범이 출시되는 것과 동시에 슈퍼주니어 예성과 조미가 각각 부른 '내 욕심이 많았다', '숨' 등 3개 국어 버전, 첸과 에프엑스 크리스탈의 듀엣곡 '좋았던 건', '나였던 건', '숨소리' 중국어 및 일본어 버전 등 전곡 음원이 공개된다.

태연과 종현은 13일 엠넷 엠카운트다운, 14일 KBS2 뮤직뱅크 등 각종 음악 프로그램에 출연해 '숨소리'를 부른다.

한국은 물론 중국에서도 14일 오후 8시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호남위성의 정월 대보름 특집 프로그램 '2014 호남위성 원소희락회'에 첸과 장리인이 출연해 '숨소리'의 중국어 버전 무대를 선사한다. /유순호기자

유인나·윤은혜 '연기자 외도'

각각 MC·디자이너 변신

배우 유인나(사진 왼쪽)와 윤은혜(오른쪽)가 연기자가 아닌 새로운 분야에서 활약을 예고했다.

유인나는 유진의 뒤를 이어 케이블 온스타일 '겟 잇 뷰티'의 MC로 발탁됐다. 5일 온스타일은 "유인나가 20~30대 여성들의 워너비 스타이자 남다른 패션 감각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아온 만큼 '겟 잇 뷰티'의 새 MC로 적격"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인나는 연예 프로그램과 라디오를 진행하며 탄탄한 진행 실력까지 갖추고 있어 '겟 잇 뷰티'를 더욱 빛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캐스팅 배경을 설명했다.

유인나가 합류한 '겟 잇 뷰티'는 3개월간의 정비를 마치고 다음달 5일 첫 방송된다.

윤은혜는 가방 디자이너로 변신했다. 윤은혜는 핸드백 브랜드 사만사 타바사와 손잡고 자신이 디자인한 가방 라인 '그레이스'를 출시했다. /김성운기자 ysw@

경광등 쓴 크레용팝 안무 튀네

김장훈과 '소방관 프로젝트'

5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 소방관 프로젝트' 기자간담회에서 크레용팝과 김장훈(작은 사진)이 신곡 '히어로' 무대를 최초로 공개했다. /손진영기자 son@

가수 김장훈과 걸그룹 크레용팝이 대한민국 소방관을 응원하기 위한 프로젝트 그룹 크레훈팝으로 뭉쳤다.

그동안 '기부 천사' 독도 지킴이로 불리며 수많은 공익 활동을 펼쳐온 김장훈이 이번엔 크레용팝과 손잡고 소방관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공익 활동에 나선다.

5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 소방관 프로젝트' 기자간담회에서 김장훈은 "소방관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알리기 위해 시작했다"며 "내가 살아오며 여러 활동을 했는데 이번 소방관을 위한 작업이 가장 보람되면서 눈물 나고 행복한 프로젝트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장훈은 2002년 공연 중 어깨 부상으로 외래 치료를 받게 됐고 그때 병원에서 만난 한 소방관을 통해 소방관의 현실을 처음 알게 됐다. 김장훈은 "그분과 20년간 이 기금을 하고 나서 연예가 가뇌가 된다면 힘이 되겠다고 약속했다"며 "소방관 위험수당이 한 달에 5만원이고 생명수당은 없다"고 심각한 상황을 전했다.

크레용팝과 프로젝트 그룹을 만든 것과 관련해 "헬멧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크레용팝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안무도 아이부터 어른까지 따라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며 "불을 끄러 가는 소방관을 본 시민들이 아이·어른 막론하고 박수를 보내주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12시에 공개된 크레훈팝의 '히어로'는 김장훈 특유의 거침없이 내지르는 시원한 창법과 크레용팝의 개성적인 연주가 돋보이는 곡이다. '빠빠빠'를 작곡한 김유민이 만들었다. 크레훈팝이 활동으로 얻은 수익은 전액 소방관을 위해 기부한다. /김학철기자 kimc00@

'총리와 나' 두자릿수 시청률 못넘고 종영

소녀시대 윤아와 김범수가 주연한 KBS2 월화극 '총리와 나'(사진)가 시청률 6.1%로 종영하며 결국 시청률 10%를 넘지 못했다.

5일 시청률 조사 기관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밤 방송된 '총리와 나' 17회는 전국 기준과 수도권 기준 모두 6.1%를 기록했다. 지난해 12월 9일 '미래의 선택' 후속으로 시작한 '총리와 나'는 첫 방송에서 5.9%로 출발해 내내 부진을 면치 못했다.

최연소 총리 권율(이범수)과 연예지 기자 다정(윤아)의 로맨스를 그렸지만 스무 살 차이가 나는 두 사람의 연기 조화는 시청자들을 설레게 하거나 공감을 얻어내지는 못했다. 특히 윤아는 드라마 '너는 내 운명'을 제외하고 '사랑비'와 '신데렐라맨' 등 출연작 모두 저조한 시청률을 기록했다.

반면 같은 시간대 방송하는 MBC '기황후'는 이날 25.3%로 자체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고, SBS '따뜻한 말 한마디'는 10.9%를 기록했다.

한편 '총리와 나' 후속으로는 윤계상과 한지혜가 주연하는 '태양은 가득히'가 방송된다. /장보운기자

안방도 스크린도 '지질남' 떴다 떴어!

'왕가네 식구들' 오만석 무능력남 열연 사랑받아
'돈존' 레빗 등 관심 집중
"인기 비결은 모성 자극"

'왕가네 식구들' 오만석

'사랑의 유효기간은 3년' 개스퍼드 프로스트

엄친아·'간지남'·'완소남'의 시대가 가고 '지질남'의 전성시대가 왔다. 스크린과 안방극장 남자 주인공이 온통 지질남 천지다.

'국민 드라마' 반열에 오른 KBS2 주말극 '왕가네 식구들'에 출연 중인 오만석은 허세만 많고 무능력한 탓에 아내를 고생시키지만 미워할 수 없는 허세달 역을 맡아 '국민 지질이'로 사랑받고 있다.

지질남의 인기는 스크린에서도 마찬가지다. 요즘 최고의 '대세남'으로 꼽히는 이종석은 지난달 22일 개봉한 '피끓는 청춘'에서 여학생 앞에선 카사노바지만 정작 싸움 잘하는 선배들 앞에선 한없이 작아지고 마는 중길 역으로 연기 변신을 시도했다.

지난달 9일 개봉한 영화 '플랜맨'에서 정재영은 1분 1초까지도 계획을 세워 생활하는 지질하고 소심한 성격이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자신을 바꿔가는 한정석 역을 맡아 깊은 인상을 남겼다.

외화에서도 지질남이 대세다. 9일 개봉한 영화 '돈 존'에서 조셉 고든 레빗은 여러 섹시녀와의 하룻밤에도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 야동으로 욕구를 채우는 돈 존 역을 연기했다.

13일 개봉 예정인 영화 '사랑의 유효기간은 3년'에는 못 말리는 지질남이 세 명이나 등장한다. 사랑에 실패한 후 더 이상 사랑을 믿지 않는 마크(개스퍼드 프로스트)와 그의 두 친구 조지(조이 스타), 피에르(조나탄 람베르)다.

이들은 모였다 하면 야한 농담과 여자 이야기를 늘어 놓기 일쑤다. 그중 주인공 마크는 첫눈에 반한 알리스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답 없는 문자메시지를 매일 들여다보며 자신의 집주소를 문자로 보내는 등 지질함의 극치를 보여준다.

이 영화의 배급사 더블앤조이 픽쳐스 측은 "지질하고 못났지만 밉지 않고 왠지 모르게 지켜줘야 할 것만 같은 이들의 매력이 여성들의 모성본능을 자극하고 있다"고 지질남이 각광받는 이유를 분석했다.

/박선영기자 tsjo0427@metroseoul.co.kr

10대 여진구 200억 대작 이끄나

영화 '권법' 주인공 물망 올라 소속사·제작진 "확정된 것 없다"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10대 배우 여진구(사진)가 200억원대 대작의 주인공으로 물망에 올랐다.

5일 영화계에 따르면 여진구는 '웰컴 투 동막골'의 박광현 감독이 준비하는 차기작 '권법'의 주인공 제안을 받고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소속사와 제작진은 "확정된 것이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여진구가 이 영화의 적임자라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권법'은 불의를 보면 괴력이 생기는 고교 3학년생 권법이 주인공인 SF 판타지 영화다. 조인성이 제대 직후 주인공으로 낙점되며 오랜 기간 관심을 보인 작품이지만 제작이 지연되면서 결국 남자 주인공 자리를 비워둔 상태다.

그러나 최근 CJ엔터테인먼트가 중국 최대 국영 투자배급사인 차이나필름그룹, 중국 메이저 제작투자사인 페가수스&타이허 엔터테인먼트와 손잡고 제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캐스팅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여진구는 지난해 개봉한 영화 '화이: 괴물을 삼킨 아이'의 주연을 맡아 10대답지 않은 탄탄한 연기력과 대중성을 보여주며 각종 시상식 신인상을 휩쓸었다. 10대가 끌어가기에는 지나치게 큰 제작 규모가 부담이기는 하지만 여진구의 성장세를 볼 때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영화계는 기대를 걸고 있다.

/유순호기자 suno@

해외서도 잘나가는 '변호인'

상영관 수 증가 할 듯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변호인'(사진)이 해외에서도 높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배급사 NEW는 5일 "'변호인'이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보스턴, 애틀랜타, 달라스, 휴스턴, 시애틀에 이어 워싱턴, 뉴저지, 라스베이거스, 하와이, 필라델피아 등에서도 개봉을 확정 지었다"면서 "국내뿐 아니라 해외 관객에게도 뜨거운 반응을 얻어 해외 상영관 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앞서 '도둑들', '신세계', '아저씨'를 배급한 북미 배급사 웰 고 USA(Well Go USA)의 대표 도리스 파드레서는 "'변호인'은 용기와 인내, 인권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다. 영화 속 '송변'이 보여준 도전과 용기는 많은 관객에게 진심으로 다가갈 것이라 생각되며 북미 관객들도 함께 공감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한 바 있다.

한편 이 영화는 국내에서 뜨거운 입소문을 불러일으키며 3일 기준으로 1117만9769명을 동원했다. 1980년대 초 부산을 배경으로 돈 없고, 백 없고, 가방끈도 짧은 세무 변호사 송우석(송강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다섯 번의 공판과 이를 둘러싼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렸다.

/박선영기자

유지태 '키스 앤 크라이' 내레이션 참여

배우 겸 감독 유지태(사진)가 공연 '키스 앤 크라이'의 한국어 내레이션에 참여했다.

2011년 벨기에에서 초연된 이 공연은 '토토의 천국', '제8요일'로 유명한 벨기에 출신의 영화감독 자코 반 도마엘의 연출작이다. 테크놀로지와 인간의 감성이 만나는 방법을 통해 한 여인이 평생에 걸쳐 사랑했던 다섯 명의 연인에 대한 사랑의 기억을 감동적으로 그려낸 작품이다.

공연은 한 여인의 이야기지만 극을 이끌어가는 내레이션은 남성의 목소리로 진행된다. 벨기에 공연 당시에는 연출가가 직접 내레이션을 맡았으며 국내 관객들을 위해 준비한 한국어 내레이션은 유지태가 맡았다.

도마엘이 유튜브를 통해 한국의 다양한 배우와 예술가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고 이 중 감성적이고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듯한 유지태의 음색이 공연과 가장 잘 어울린다고 판단해 내레이터로 추천했다. 평소 도마엘 감독의 열혈 팬이었던 유지태 또한 흔쾌히 제안을 수락했다.

이 공연은 다음달 6~9일 LG아트센터에서 국내 초연된다.

/박선영기자

박기웅 '메이드 인 차이나' 캐스팅

배우 박기웅(사진)이 김기덕필름에서 제작하는 영화 '메이드 인 차이나' 출연을 확정했다.

김기덕 감독이 제작·각본을 맡고 김동후 감독이 연출을 맡은 이 영화는 '장어'라는 독특한 소재로 인간에 대한 성찰과 메시지를 전달하는 작품이다. 박기웅은 확고한 신념을 토대로 강한 남성미를 내뿜는 주인공 첸 역을 맡아 힘 있고 섬세한 내면 연기로 영화를 이끌어나갈 예정이다.

특히 영화 '은밀하게 위대하게', '최종병기 활', 드라마 '각시탈', '남자 이야기', '추노' 등을 통해 인상 깊은 연기를 펼쳤던 그는 캐스팅 직후부터 철저한 캐릭터 분석으로 곧은 헤어스타일, 의상 콘셉트 등을 꼼꼼하게 체크하며 준비에 만전을 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기덕필름의 김순모 프로듀서는 "박기웅은 내면의 감성이 풍부한 배우다. 첸 역할로 심도 있는 연기를 볼 수 있을 거라 자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영화의 여주인공으로는 한채아가 캐스팅됐다.

/박선영기자

여유만만 vs 야심만만

"연아 경험 많고 강철 멘탈" "마오 트리플 악셀 무기"· 전문가 두명 대결 막상막하 전망

sochi.ru 2014 D-1

'피겨여왕' 김연아(24·왼쪽 사진)가 결전의 무대가 가까워 오면서 해외 전문가들의 전망과 팬들의 기대가 쏟아지고 있다.

5일 일본 도쿄스포츠에 따르면 김연아의 전 코치인 브라이언 오서(캐나다)는 일본 취재진들에게 "이번에는 (금메달이) 아사다 마오(오른쪽)의 차례"라며 "아사다는 강력한 트리플 악셀을 손에 넣었으니 분명히 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서는 2006~2007시즌부터 김연아를 지도했고 2010년 밴쿠버 올림픽에서 금메달 획득에 성공한 뒤 같은 해 8월 갈등이 불거지며 김연아와 결별했다. 현재 일본의 남자 피겨 유망주 하뉴 유즈루를 지도하고 있으며 일본 선수단 자격으로 소치를 찾았다.

비록 아사다의 금메달을 점쳤지만 오서는 전날 한국 취재진에게는 "김연아가 경험이 많고 정신력이 가장 강하다"며 이번 승부는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박빙일 것이라고 밝혔다.

올림픽 피겨 스케이팅 최연소 금메달리스트인 타라 리핀스키(32·미국)는 이들의 대결을 박중세로 예상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5일 '나가노 여왕이 점치는 대관의 행방'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기사에서 리핀스키는 "김연아가 밴쿠버 올림픽 때와 같은 완벽한 연기를 펼칠 것 같지는 않다"며 "4년 동안 김연아의 점프 구성은 세계 정상급에 미치지 못했고, 이번 시즌에는 작은 대회에만 나서 올림픽에서 어떤 연기를 펼칠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겨계에서는 김연아의 올림픽 2연패를 예상하는 목소리가 높고 심판도 항상 김연아를 주목한다"며 "이런 요소를 살펴볼 때 정말 재밌는 싸움이 될 것"이라고 김연아와 아사다의 경쟁을 기대했다.

리핀스키는 1998년 나가노 올림픽에서 미셸 콴을 누르고 만 15세의 나이로 여자 피겨스케이팅 싱글 금메달을 차지했다.

한편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달 27일부터 3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한 결과 금메달을 꼭 따기를 바라는 종목으로 피겨스케이팅이 63%로 1위에 올랐다.

또 일본 산업능률대 스포츠 경영 연구소가 4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김연아는 일본인이 가장 주목하는 해외 선수 중 압도적인 차이로 1위에 올랐다.

/장순휴기자 sunel@metroseoul.co.kr

경쟁자도 인정한 안현수

"강력한 금메달 후보 꼽아"— 조직위원회도 관심

러시아 국기를 달고 2014 소치 동계올림픽에 출전하는 안현수(사진)에 대해 대회 소치조직위원회가 관심을 보이고 있다.

5일 조직위는 정보시스템을 통해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2006년 토리노 올림픽에 출전한 안현수가 올림픽에 돌아온다. 그는 강력한 금메달 후보"라고 소개했다.

조직위는 이어 "안현수는 침묵을 지키고 있지만 주변에선 그의 복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안현수는 경쟁자들도 인정하는 강력한 금메달 후보다. 2008년의 무릎 부상 때문에 코너를 도는 기술이 다소 약해지기도 했으나 여전히 다른 선수들을 뛰어넘는 기술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안현수는 지난 독일 드레스덴에서 열린 2014 유럽쇼트트랙 선수권 대회 500m, 1000m, 3000m, 5000m 계주 경기에서 모두 금메달을 따내며 이번 대회 4관왕에 올랐다.

이뿐만 아니라 조직위의 글에는 인기가 많고 존경받는 안현수의 성격에 대한 내용도 실렸다. 헝가리의 빅토르 크노흐는 안현수에 대해 "매우 겸손하고 조용하다"면서 "좋아할 만한 사람"이라고 칭찬했다.

/정의준기자 yuu@

이승훈 한국선수단 첫 도핑 테스트 받아

한국 스피드스케이팅 간판스타 이승훈(26·대한항공)이 한국 선수단에서 처음으로 도핑 테스트를 받았다.

5일 현재 도핑 테스트를 받은 한국 선수는 이승훈이 유일하다. 올림픽을 대비한 전지훈련을 마치고 2일 소치에 도착한 이승훈은 이튿날 저녁 선수촌을 찾은 세계반도핑기구(WADA) 관계자에게 도핑 검사용 소변·혈액 샘플을 제출했다. 도핑 테스트 대상자는 무작위로 정한다.

한편 소치 동계올림픽 개막이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소치올림픽 한국단체에 대한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정의준기자

긴박한 상황 5일 오전 5시께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러시아 소치 해안 클러스터의 한 미디어 숙소에서 화재 대피 경보가 발령된 뒤 숙소시설 관계자들이 경보를 해제할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 약 20분간 소란 끝에 잘못 울린 경보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소치 미디어촌에 경보 한밤 기자들 대피소동

2014 소치 동계올림픽 숙소에 개막 전부터 소동이 벌어졌다.

5일 새벽 5시(현지시간)께 소치 해안클러스터의 한 미디어 숙소에서 요란스러운 화재 경보가 울렸고, 잠을 자던 각 국 취재진은 혼비백산해 건물 밖으로 나왔다. 약 20분간 소란 끝에 경보가 잘못된 것으로 드러나 피해 없이 상황은 마무리됐다.

시설 관리자는 "누군가 방 안에서 담배를 피운 것 같다"고 설명했다. 최근 거듭되는 테러 위협 등으로 총괄 안전 문제에 신경이 곤두서 있던 취재진도 그제야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요란스럽게 울려대던 경보도 상황을 확인한 지 10분가량 지난 뒤에야 꺼지는 등 관리를 허술히 하고 있다는 증거가 곳곳에 보였다.

/장순휴기자

윤석민 텍사스·컵스 스카우트 앞 30개 불펜피칭

미국프로야구 진출을 노리는 윤석민(28·사진)이 텍사스 레인저스와 시카고 컵스 앞에서 불펜피칭을 했다.

미국 댈러스 모닝 뉴스는 5일 윤석민이 텍사스와 시카고 컵스 관계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30여 개의 불펜피칭을 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윤석민은 이날 텍사스 전지훈련지인 애리조나주 서프라이즈에서 공을 던졌다.

미국 언론은 "메이저리그 6개 구단이 윤석민 영입을 고려 중이어 그의 불펜피칭을 보고 싶어 하는 구단도 있다"고 전했다.

미국 언론이 꼽은 6개 팀은 이날 불펜피칭을 지켜본 텍사스와 컵스, 지난 1일 윤석민의 투구를 본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볼티모어 오리올스, 꾸준히 윤석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보스턴 레드삭스와 미네소타 트윈스다. 최근 가장 적극적으로 윤석민에게 접근하는 구단은 텍사스와 볼티모어다.

MLB닷컴은 이날 "볼티모어가 윤석민에게 구체적인 영입 제안을 했다"고 전했다. 또 "텍사스가 무릎 부상을 당한 대릭 홀랜드를 대체하기 위해 윤석민의 영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성훈기자

프로농구 전적 5일

팀					합계
인삼공사	17	8	22	18	65
오리온스	16	19	17	22	76
KT	24	22	12	15	73
LG	23	16	23	12	74
하나외환	13	10	18	13	66
우리은행	14	12	15	17	63

프로배구 전적 5일

팀			팀
GS칼텍스	3	1	한국도로공사
우리카드	0	3	대한항공